

애틀한 기억의 향기... **The Herb**

슬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환하다는 사실, 아세요? .....

**허브**

(주)씨네마 드림플러스

소중한 것은 떠난 뒤에 남는다고 합니다.

김 은진  
011-432-4339

## 등상인물

### 차상은(22)

7살 아이의 영혼을 지닌 22살의 아름다운 여자.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성장이 멈춰버렸다. 늘 엉뚱한 행동들로 사람들을 걱정시키지만, 그녀의 천진하고 순수한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 김현숙(45)

상은의 엄마.

철없는 딸, 상은이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보는데 소원인 현숙. 현숙은 어린 아이같은 상은을 세상에 혼자 두고 떠나야만 하는데.. 현숙은 사랑하는 딸 상은을 위해 죽음과 맞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

### 윤종범(24)

상은이 사랑을 알아가는 대상.

양아치같은 겉모습과 달리 가슴 속에 따뜻함이 숨어있다. 처음 상은의 사랑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어느새 상은의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다.

### 윤영범(9)

상은의 친구이자 종범의 동생.

어린 나이에 비해 속이 깊고 세상을 일찍 겪은 아이로, 상은에게 우정 이상의 것을 남기고 간다. 우연히 떠난 상은과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된다.

### 미자(45)

현숙의 오랜 친구.

현숙과 함께 홈패션 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숙의 죽음을 지켜본다.

그밖에 태민, 의사, 가게 주인들, 역무원, 경찰, 면접관...

## # 프롤로그

아직 빛이 없는 어두운 화면 위로 어디선가 맑은 멜로디 소리가 들려온다.  
차츰 어둠을 씻어내고 조금씩 환해지는 화면.  
화면 밝아지면, 향기가 진동할 듯 생생한 허브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초록 잎 사이에 숨어 보일 듯 말 듯 팔랑이는 나비 한 마리.  
카메라 다가가자 들켜버렸다는 듯 후루룩 날아오른다.  
나비를 따라 함께 부상하는 카메라.  
어느새 카메라는 나비의 시선으로 바뀌어 음악소리에 맞춰 너울거린다.

햇살이 청량한 어느 오후.  
중국집 배달부를 지나, 요란한 야채장수를 지나, 골목 어귀에 서있는 트럭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드는 카메라.  
갓 빨아 말린 청량한 빨래들을 피해, 개구쟁이들의 손사래를 피해, 딱 피어  
난 어린 꽃망울의 달콤한 유혹을 피해 도착한 곳은  
음악 소리가 처음 시작되는 어느 집, 파란 대문 앞.  
천천히 파란 대문을 통과하면 각종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마당이 보이고..  
카메라는 이제 나비의 시선에서 누군가(현숙)의 시선이 되어  
봄 향기 물씬 풍기는 나무들, 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겹게 보듬으며  
한발짝 한발짝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활짝 열려진 창 문.  
창문을 통해 한 눈에 들어오는 방안 정경 속에  
음악을 틀어 놓은 채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상은의 모습이 보인다.  
소중하고 애뜻한 시선으로 상은을 바라보는 카메라.  
상은. 어떤 시선을 느꼈는지 불쑥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두리번 두리번, 동그랗게 눈을 뜨고 혹시 누가 왔나 살펴보는 상은.  
아무도 보이지 않자 이내 거울로 다시 시선을 옮긴다.

## # 상은의 집/안

원피스를 차려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상은(22).  
여전히 샤워 캡을 쓰고있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아이처럼 투명한 피부에 순수한 눈동자를 한, 헤어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은  
상은의 얼굴은 나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진해 보인다.

립스틱을 칠하는 상은.  
지나치게 정성껏 립스틱을 바른다는 느낌이 든다.  
립스틱을 다 바르자 화장을 끝냈다는 듯 기분 좋게 거울을 보는 상은.  
맨 얼굴에 립스틱만 바른 상은은 더없이 발랄해 보인다.  
가만히 거울을 보던 상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화장대 위에 펼쳐 놓은 푸른색 노트를 집어든다.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훑어가며 읽어 내려가는 상은.  
어느 부분에 이르자 아차, 하는 얼굴로 머리를 감싸놓은 샤워캡을 벗는다.  
탐스럽게 떨어지는 상은의 머리카락.  
기분 좋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내리는 상은.  
결 고운 생머리를 드리우자 상은, 제법 성숙해 보인다.  
이젠 정말 다 끝났다는 듯 화장대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상은.

## # 마루

마루로 나온 상은. 집 단속을 하는 모양이다.  
여전히 손에 푸른색 노트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열심히 집 단속을 하는 상은.

상은 : (노트 한 번 보고, 고개 들고) 가스..

가스 밸브를 잠그는 상은.

상은 : (노트 한 번 보고, 고개 들고) 수도꼭지..

계수대의 수도꼭지를 다시 한번 꼭 잠그는 상은.  
화장실 쪽에서는 여전히 푹푹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상은 : (노트 한 번 보고, 고개 들고) 전기..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하나씩 전기불을 켜다가 다시 끄는 상은.  
중얼거리며 분주하게 집안을 돌아다니지만 어딘지 어설피다.  
집 단속을 다 끝내놓고 이번엔 가방을 챙기는 상은.

꽤 큼직한 가방 안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담기는 모습이 보인다.  
손수건, 지갑, 푸른색 노트..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이 잘 들어가다  
난데없이 어린이 용 동화책 한 권이 들어간다.

이어 코가 들성들성 빠지고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는 엉성한 뜨개질,  
거기에 곰 인형까지 '척'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가방 문이 닫히려다...가 다시 벌컥 열리더니  
바다를 배경으로 현숙과 상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다.  
닫히는 가방 문.

## # 마당

자전거 바구니에서 모자를 꺼내 쓰고, 대신 가방을 넣는 상은.  
챙 넓은 모자를 쓰고 긴 치마를 팔랑이며 자전거를 끌고 마당을 나간다.  
언 듯 보기에, 소화하기 어려워 보이는 복장을 한 상은의 모습은  
동화 속 주인공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은의 거리낌없고 꾸밈없는 표정과 행동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옅은 미소를 감동게 하는 묘한 매력을 자아낸다.

## # 거리

경쾌하게 페달을 밟으며 능숙하게 자전거를 타는 상은.  
상은이 열심히 집 단속을 했건만  
끄지않고 나온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상은의 뒤를 따른다.  
음악 소리가 서서히 배경 음악으로 전환하며  
봄의 향기 속을 달리는 상은의 모습 위로 메인 타이틀이 뜬다.  
[허 브]

## # 유원지 내 사무실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상은의 뒤로  
유리창을 통해 자그마한 유원지의 놀이동산 모습이 보인다.  
앞에는 면접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면접관 : (상은을 힐끗 쳐다본다) 네. 지금 왔네요.. 친구 딸이라고 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면접관.

면접관 : (친절하게 웃으며) 미안해요. 전화가 와서..  
 상은 : (방긋 웃는다)..  
 면접관 : 음.. 스넥 코너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일은 단순해요. 몇 가지 안되는 요리 방법만 익히면.. 별로 어려울 건 없을꺼예요. ..할 수 있겠어요?  
 상은 : (밝게 웃으며) 네..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면접관 : .. 그래요? .. (조금 미심쩍은 얼굴로) 잘하는 게 뭐예요?  
 상은 : 나무 꽃, 허브.. 잘 키워요. 얼마 전에 중범이 오빠가 새로운 허브를 가져다 줬는데 정말 향기가 좋아요.  
 면접관 : (점점 더 당황스럽다) 꽃 키우기라.. ...음 그러면 출퇴근은..

면접관. 혹시 상은이 출퇴근이라는 말을 못알아 들을까봐 다시 설명을 한다.

면접관 : 집에서 여기까지.. 뭐로 다닐꺼예요?  
 상은 : 자전거요.  
 면접관 : 아, 자전거.. 자전거 잘 타요?  
 상은 : 끄덕끄덕.. (파란 노트를 본다) 엄마 말이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고 했어요.

면접관. 아까부터 상은이 보고있는 파란노트가 무척 궁금하다.

면접관 : 그런 말이 ..(노트를 가리키며) 거기.. 써있어요?  
 상은 : 네..  
 면접관 : (재미있다는 듯) 괜찮다면.. 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면접관에게 파란 노트를 건네는 상은.

면접관. 흥미로운 표정으로 노트를 펼쳐든다.

노트를 펼치면 상은을 위해 일일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기록들이 보인다.

차근하게 읽어 내려가는 면접관.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점점 흐뭇한 표정이 되는 면접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상은.

아이같이 천진한 상은의 얼굴 표정 위로

현숙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현숙(목소리):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은거야. 자전거의 패달을 열심히 밟으면 잘 달릴 수 있지만 패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자

전거처럼, 자신의 인생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의 패달을 열심히 밟아야한다...

### # 골목(1년 전 과거/이후 모두 과거)

현숙 : 자, 이제 타 볼까?

현숙이 상은의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고 있다.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뒤뚱거리는 상은의 자전거.

현숙 : 괜찮아. 엄마가 뒤에서 잡아 줄테니까 마음 놓고 달려.  
상은 : 엄마, 손 놓으면 안돼..  
현숙 : 음.. 자, 출발!

상은의 자전거. 조금 가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상은. 마음대로 되지않자 불만 가득한 얼굴로 현숙을 쳐다본다.  
자전거에서 내려와 통한 얼굴로 저만치 주저앉는 상은.

현숙 : 처음엔 다 그런거야. 몇 번만 더해보면 우리 상은이도 잘 탈 수 있을텐데..  
상은 : 자꾸 넘어지기만 하는데 그걸 꼭 배워야해? 그냥 지금처럼 엄마가 태워주면 되잖아.

현숙. 상은의 태도에 잠시 넋 나간 얼굴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상은을 설득해본다.

현숙 : 그럼 우리 상은이는 엄마 안될꺼야? 나중에 엄마되서 상은이 딸 생기면 자전거 안태워 줄꺼야?

상은. 엄마 말을 듣고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주뻗뻗 다시 자전거 앞으로 걸어오는 상은.

현숙 : (상은의 손을 잡으며) 엄마도 할머니가 처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줄 땐 상은이처럼 넘어지고 그랬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상은.



현숙 : 상은이 자전거 잘 타면, 엄마랑 상은이랑 자전거 타고 바닷가 놀러 갈까?

상은 : (금새 화색이 들며) 정말?

정말이라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현숙.

상은. 아이처럼 펄쩍이며 좋아한다.

현숙 : 자, 그럼 다시 타 볼까?

상은 : (착하게) 응.

자전거에 올라타는 상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현숙이 잡아주기도 전에 출발하려고 든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현숙.

현숙 : 출발!

힘차게 출발하는 자전거.

현숙이 중심을 잡아주느라 힘겹게 자전거 뒤를 쫓아간다.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자전거.

현숙. 숨을 몰아쉬며 자전거 뒤를 달려가지만 역부족이다.

자전거를 놓치며 주저앉는 현숙.

상은. 현숙이 자전거를 놓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린다.

이제 혼자서도 중심을 잡으며 달려가는 자전거.

현숙. 상은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 # 골목 입구

상은의 자전거가 달려온다.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 자기도 대견한지 자랑스럽게 웃으며

상은 : (목소리를 높여) 엄마, 나 잘 하지?

상은.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답이 없다.

울컥 겁이 나는 상은.

슬쩍 뒤를 돌아보면 현숙은 없다.

갑자기 엄마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상은의 자전거.

상은. 비명을 지르며 비탈길을 내달린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질끈 감는 상은.  
'과당'

상은 어딘가에 크게 부딪힌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다.  
천천히 눈을 뜨는 상은.  
보면, 꿈속에서나 그러봄직한 남자의 얼굴이 코 앞에 있다.  
그대로 얼어붙는 상은.

종범 : 괜찮으세요?  
상은 : (말도 못하고) 끄덕끄덕.

종범. 상은을 일으켜주며

종범 : 한번 일어나봐요.

종범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는 상은.  
종범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다.  
상은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다

종범 : 괜찮으면 가볼게요.

대답도 못하고 마냥 머뭇거리는 상은.  
그때 저만치 상은을 부르며 현숙이 달려온다.  
엄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솟는 상은.  
울떡거리며 현숙에게로 달려간다.

상은 : 엄마.  
현숙 : 상은아. 괜찮니?

그런 상은의 모습을 어이없지만 밋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범.  
상은. 종범의 시선을 느꼈는지 얼른 현숙의 뒤로 숨는다.  
종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현숙 : 괜찮아?

상은. 현숙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종범의 뒷모습만 바라만 보고있는 상은.

상은 : (중범이 눈에서 사라지자) 나 자전거 안타! 이제 이런거 절대 안 탈  
꺼야!

심통내며 쪼르륵 돌아가버리는 상은.  
현숙. 기운이 빠진다.

### # 상은의 집(다음날)

11시에서 12시를 향해 육박하는 초침.  
딸각 딸각 움직이는 초침 바늘이 56초를 가리키고..  
넷! 셋! 두울! 하나!... 심각하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상은  
땀. 정확하게 열두 시를 가리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제치고.. 정원을 지나.. 대문을 빠져 나간다.

### # 골목/세탁소

상은. 골목을 나와 보이는 사람마다 반듯하게 인사를 한다.  
상은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자 시계를 확인하는 세탁소 주인.

세탁소 : 정확하구만.. (안 쪽을 향해) 근철아, 열두시다. 열두시에 깨워달라면  
서....

몇 번 소리쳐도 안에서 반응이 없자

세탁소 : (한심하다는 듯) 뭐하느라고 꼬박 밤은 새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잠  
만 자는지... (목소리를 높여) 근철아, 여자한테서 전화왔다니깐,

안에서 방 문이 확 열리며 부시시한 몰골로 얼굴을 내미는 세탁소 아들.

근철 : (헬렐레한 눈으로) 아, 미치겠네.. 낮에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랬더  
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 들었나?

### # 골목/문방구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은.  
상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부터 한다.

상은 : 안녕하세요. (손에 든 쪽지를 건네며) 이거요. 아저씨.  
문방구 : 어, 상은이 왔구나?

상은. 아이 손을 잡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아줌마를 보고도 밝게 인사한다.

상은 : 안녕하세요. (꼬마에게) 안녕.  
똥똥이 : 그래.. 상은이구나. 어디 가니?  
상은 : 네. 내 친구 영범이 만나려요..

문방구 아저씨. 이것저것 물건을 골라 카운터로 가져온다.  
물건을 담아주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 올려놓는 상은.  
다시 깡뚫하게 인사를 하고 문방구를 나간다.  
상은이 나가자 물건값을 치루기 위해 아이와 아줌마가 카운터로 온다.  
장부에 알아서 계산을 해서 적는 문방구 주인.  
수첩을 내려 놓으면 '차상은'이라고 적혀있다.

똥똥이 : 저건 무슨 병인가 몰라. 시집갈 나이가 딱찬 것이 저러고 다니니 어  
미 속이 오죽하겠어요.  
문방구 : 제 정신 박혔다고 성질머리 부리는 놈보다야 훨씬 낫죠. 뭐.

방에서 나와 신발끈을 묶던 수퍼 아들(고등학생)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거 다 안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상자를 걷어차고 나간다.

문방구 : 저저.. 저 놈의 자식!

문방구 주인. 발끈하다가, 밥도 안먹고 나가는 아들녀석이 걱정이 되는지..

문장구 :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명준아, 명준아, 밥 안먹고 갈꺼야,  
똥똥이 : 에이그.. 그러게 부모마음 알아주는 자식이 어디있나... (이이의 손을  
잡으며) 갈게요.

문방구를 나가는 아줌마.  
나가다 말고 아이의 뒷통수를 한 대 콧 쥐어박는다.

똥똥이 : 너는 인사할 줄도 몰라? 인사? 안녕히계세요.. 해야지.

아이. 어린 나이에도 제법 반항기 있는 눈초리로 엄마를 노려본다.

### # 횡단보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벗어나 어딘가로 달려가는 상은.  
지나는 차량도 없어 한가한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사람들, 신호에 관계없이 마구 길을 건너는데  
바쁘게 걸어가던 상은. 빨간 불에 우뚝 멈춰 신호를 기다린다.  
옆에서 건너려던 한 노인이 상은을 보고 우뚝 멈춰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들 멈춰 서며 자연스레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횡단보도.  
기다리던 상은. 신호가 바뀌자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길을 건넌다.  
상은이 건너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 # 초등학교/앞

바쁜 걸음으로 초등학교 담 길을 달려와  
아이들이 몰려나오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은.  
상은. 마치 교문 안은 자신이 들어가면 안되는 영역으로 알고있는지  
행여라도 교문 안으로 발이 넘어갈까봐 조심스러워한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상은에게 아는 체 하며 달려오는 꼬마들.  
반갑게 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비웃으며 지나가는 아이들, 위협하는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밝게 웃으며 눈인사를 하는 상은.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뒤 한참 후에야 텅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터덜터덜 걸어오는 영범의 모습이 저만치 보인다.

상은 : (손짓하며) 영범아,

영범. 교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는 상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상은에게 다가간다.

상은 : (손에 있는 봉투를 내밀며) 니가 적어준 준비물.

가만히 봉투를 바라보다 힘 없이 받아드는 영범.

영범 : .. 미안해.

상은 : 바보.. 이럴 땐 고맙다고 해야지.

영범. 상은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짓는다.

영범 :        그래. 고마워.  
상은 :        (이제 됐다는 듯 활짝 웃으며) 또 준비물 없어?  
영범 :        .. 응.  
상은 :        그럼 가자.

상은은 자연스럽게 영범의 손을 잡는데,  
영범은 상은의 손길이 오자 슬쩍 놀란다.  
가지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영범.  
상은이 왜 그러냐는 듯 영범을 쳐다본다.

영범 :        학교 안에 들어가 볼래?  
상은 :        (고개를 흔든다) ... 난 학교가 무서워..  
영범 :        왜? 학교 무서운데 아니야..  
상은 :        ...옛날에 엄마랑 학교 갔다가.. 엄마가 선생님이랑 딱 싸웠는데..

상은. 잠깐 말을 멈춘다.

상은 :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  
영범 :        ..내가 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뭐라고하면 내 친구라고 그렇게..  
              그러면 괜찮아..

영범. 상은의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품을 뒤로 빼며 교문을 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상은.  
영범이 괜찮다는 눈빛으로 상은을 유도한다.  
주춤주춤하다 얼떨결에 훌쩍 교문 안으로 발을 집어 넣는 상은.

## # 운동장

상은. 교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처음으로 묶인 끈이 풀린 강아지처럼 운동장을 내달린다.  
설치되어있는 놀이 시설물에 전부 올라가 보는 상은과 영범.  
정글짐에 올라가 매달리는 영범.  
상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표기를 보여준다.  
영범의 원숭이 같은 행동을 보고 즐거워하는 상은.

상은 : 나도 원숭이 할래.

치마를 입은 상은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다.  
치마가 찢혀지며 드러나는 곰 인형이 그려진 아동용 팬티..  
두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장난치며 까르르 거린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영범.  
재빠르게 철봉에서 내려와 상은의 치마를 올려준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상은의 치마를 잡고있는 영범.  
아이들이 다 지나가자 치마를 놓으며,

영범 : 이제 원숭이 놀이 그만 하자.

상은 : (단순하게) 그래.

### # 교실 안

교실 안으로 상은을 데리고 들어온 영범.  
상은. 교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눈 여겨 봐둔다.  
영범은 어느새 칠판에 붙어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앉기에는 너무 작은 책걸상..  
영범이 등을 돌리고 있자, 가만히 의자를 빼고 앉아보는 상은.  
영범이 뒤를 돌아보려고 하자 재빠르게 일어난다.  
얼른 뒤에 걸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구경하는 척 하는 상은.

영범 : (노란색 분필을 들어 보이며) 이리 와..

상은에게 분필을 건네는 영범.  
상은. 영범과 함께 칠판에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  
칠판 전면에 가득한 둘의 엉뚱하고 짓궂은 낙서 솜씨.

### # 야외 수영장/철조망

건물 뒤 쪽으로 나오자 야외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보인다.  
테니스장은 오픈 된 상태지만 아직 야외수영장은 문이 닫혀있다.  
영범. 철조망을 타고 담을 넘기 시작한다.  
놀라는 상은에게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영범.  
상은. 주변 눈치를 보며 안으로 쪽 들어간다.  
영범. 얼른 다시 문을 잠그면서

영범 : 문 잠겼으니까 괜찮아.

철조망 안으로 둘의 모습이 몽땅 노출되고 있지만  
상은. 그 말에 금방 안심한다.

### #야외 수영장

파란색 페이트 칠이 되어있는 야외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범과 상은.  
아직 물을 다 채워지지 않은 채 신발이 담길 정도의 얇은 물이 찰랑거린다.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 물 위를 미끄러지며 걸어 다니는 상은과 영범.  
상은. 피겨스케이트 선수처럼 우아하게 자세를 잡아본다.  
영범도 상은을 향해 멋지게 자세를 취한다.  
벙글벙글 돌아보는 상은.  
영범도 상은의 주변을 벙글벙글 돈다.  
흥이 나서 수영장 전체를 돌아다니는 두 사람.  
영범. 저 쪽에 수도꼭지를 발견하고 얼른 뛰어가 호스를 끌고온다.  
상은에게 호스를 쥐게하고 다시 뛰어가 수도꼭지를 트는 영범.  
순간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물줄기.  
상은. 자지러지게 좋아한다.  
호스의 입구를 막아 분수를 만드는 상은.  
상은에게 다가오는 영범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댄다.  
손을 허우적거리며 상은에게 곧장 다가오는 영범.  
상은. 열심히 공격하지만 영범에게 호스를 빼앗긴다.  
영범의 공격을 받는 상은.  
햇살이 부서지는 물방울을 통과하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어디선가 수위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영범 상은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한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요동치는 호스... 허공에서 춤추는 물줄기..

### # 현숙의 홈페이지 가게

시원한 소리를 내며 윈도우에 뿌려지는 물줄기...  
먼지로 얼룩진 유리창을 닦아내자 밖의 모습이 투명하게 보인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다스럽게 물려가는 여학생들의 모습..  
한껏 멋을 부리고 남자 친구의 팔짱을 끼고 발랄하게 걸어가는 여자..  
갓난 아이를 업은 애편 엄마의 모습..



물 뿌리기를 마친 미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미자 : (창밖을 보고있는 현숙에게) 시원하지?  
현숙 : 그래. 시원하다. (한숨 쉬 듯) 사람 속도 이렇게 씻어내릴 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

미자. 호스를 갖다놓고 현숙 앞에 와 앉는다.

미자 : (현숙의 얼굴을 살피며) 너.. 요즘 무슨 고민있니?  
현숙 : (화들짝) 아니, 고민은..  
미자 : 아냐?

현숙. 얼른 화제를 돌린다.

현숙 : 아참, 소영인 잘 지냈어?  
미자 : (걱정이라는 듯) 요즘 좀 잠잠하다. 무슨 놈의 시집은 그렇게 빨리  
가서 사서 고생인지..  
현숙 : 엄마 닮았나보지 뭐..  
미자 : 그러게. 연애나 실컷해보고 느즈막하게 해도 되는걸.. 그땐 뭐가 그  
렇게 좋다고 생난리를 치고 결혼했는지 몰라.. 소영이도 일찍 시집  
간다고 설칠 때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아니? 너 그 속 모른  
다..  
현숙 : (약간 침울해진다) 나는 우리 상은이 시집가는게 소원인데.. 뭘..  
미자 : ... 그냥 말이 그렇단거지..

미자. 자기가 실수했나보다 싶은지 말꼬리를 흐린다.

미자 : 근데.. (조심스럽게) 요즘 통 상은이가 안보이네?  
현숙 : 음.. 친구가 생겼나봐.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그 애도 친구가 없었  
나 봐.. 둘이 곧잘 노네..  
미자 : 그래? 이젠 떨어지기도 하나봐?  
현숙 : 아는 길은 혼자도 다녀.  
미자 : (잘 됐다는 듯) 그래야지. 너도 상은이한테 좀 대범해질 필요있다니  
까..  
현숙 : 니 말대로 평생 끼고 살 순 없잖아.  
미자 : 어이구, 철 들었네.. 이제야 니가 내 말기를 좀 알아듣는구나? ... 너  
무 걱정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다 챙겨나온다고 그랬어.

현숙. 갑자기 얼굴 빛이 안좋아 보인다 싶더니 어떤 고통으로 인상을 쓴다.

미자 : 왜 그래?

잠시후, 고통이 가라앉았는지 정신을 차리는 현숙.

미자 : 괜찮아?

현숙 : 미자야, 나 미안한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쉴게.

미자 : 그래그래. 걱정말고 가서 푹 쉬어라.

일어서다 말고 남다른 눈으로 미자를 바라보는 현숙.

미자. 현숙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읽어낸다.

현숙 : ..고마워.

미자 : 어머, 갑자기 애가 왜 이래? 너 처럼 지독한 년이 이런 일로 고맙단 소릴다하고.. 빨리 가라. 못 봐주겠다.

빙그레 웃으며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서는 현숙.

현숙 : 나 간다.

미자 : 그래.

미자. 나가는 현숙의 뒷모습을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 # 학교 담

홀딱 젖어 학교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상은과 영범.

영범. 생각난 듯 손을 보면 상은이 준 준비물을 잃어버렸다.

영범 : (난감한 표정으로) 어떡하지?

상은 : 뭐가?

영범 : 준비물.. 잃어버렸어!

상은 : (자기도 깜짝 놀란다) 어떻게... 안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는거야?

영범 : 혼나는건 상관없는데..

상은 : (울상이 된다) 나도 하루에 한번밖에는 문방구 못 가. 두 번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 영범 : (상은을 달래며) 괜찮아.  
상은 : (울떡울떡) 선생님한테 혼난다며..  
영범 : 괜찮다니까..

괜찮다는 영범의 말에도 계속 울상인 상은.  
영범. 상은을 달래다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 영범 : 우리 덤블링 타러 갈까?  
상은 : 덤블링?  
영범 : 그래. 그거 디게 타고 싶어했잖아..  
상은 : .. 난 덤블링 타면 혼나는데...?

울떡이는 상은을 부축해서 일어나는 영범.  
영범. 상은을 대하는 태도가 제법 남자답고 어른스러워 보인다.

#### # 학교 부근 공터

파란 하늘위로 높이 튕겨 오르며 덤블링 기구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약간 멀쩡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은과 영범.  
지저분하게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상은의 얼굴이 보인다.

- 영범 : 기다려. 내가 할아버지 불러낼게.  
상은 : ??  
영범 : 내가 할아버지 불러내면 그 때 타. 알았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영범.  
복덕방 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자  
할아버지 미심쩍은 표정으로 영준을 따라 터덜터덜 걸어간다.

#### # 덤블링 장

영준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사라지자 덤블링을 타는 상은.  
언제 울었냐는 듯 천진한 웃음을 터트리며  
파란 하늘이 손에 닿을 듯 펄쩍 날아오른다.  
찰랑이는 긴 머리, 팔랑이는 치맛자락, 날개짓 하는 상은...  
한번 두 번 날개짓 할수록 진짜 날개라도 돌아날 듯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상은의 겨드랑이를 간지른다.  
점점 하늘을 나는 환상에 빠지는 상은.

### # 상은의 상상

경쾌한 뮤직 비디오의 한장면을 떠올리게하는 장면.  
즐거운 음악이 시작되면,  
약간 과장되고 짓궂게 표현된 상은의 상상이 펼쳐진다.  
하얀 날개를 달고 행복한 표정으로 파란 하늘을 날고있는 상은.  
옆집 복슬이도 꼬리를 날개 삼아 상은을 따라 하늘로 날아 오르고  
평상시 상은이 좋아하는 곰인형도 상은을 따라 하늘로 날아 오른다.  
상은의 자전거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 상은을 따라 하늘로 날아 오르면,  
자전거를 타고 멋지게 달리는 상은.  
바구니에 복슬이도, 곰돌이도 사이 좋게 타고 앉아 노래를 부른다.  
팔을 벌리고 상은을 마지하는 종범.  
종범은 멋있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손에는 기타를 들었다.  
상은을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종범.  
상은, 종범의 노래 소리에 취해 흥얼거리는데..  
어디선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고향소리.  
'거기서 안 내려와! 당장 안 내려와!..'  
상은 잘 달리던 자전거가 비틀,하면서 하늘에서 추락한다.

### # 덤블링 장

균형을 잃고 덤블링으로 떨어지는 상은.  
몇 번 더 튕겨 오르다 서서히 멈춘다.  
상은이 멈추자 상은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는 영범.  
상은 정신도 못차린 채 영범의 손에 이끌려 덤블링 장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다 말고 주머니에서 만원 짜리 한장을 꺼내  
돈 통에 집어던지는 상은.  
저만치 푸르락거리며 달려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 #골목 어귀

숨을 몰아쉬는 영범과 상은.  
골목 어귀에 접어들자 안심이 되는 듯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다.

상은 : .. 미안해.  
영범 : 피.. 이럴 땐 고맙다고 하는 거라면서?

영준을 보고 살며시 웃어보이는 상은.

상은 : .. 그래. 고마워.  
영범 : (이제 됐다는 듯 활짝 웃으며) 그럼 이제 뭐할까?  
상은 : .. 나 여기서 누구 기다려야 해...  
영범 : (의아한) 그래? ..그럼 같이 기다려줄게.  
상은 : 그래도 괜찮아?  
영범 :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걸 뭐.  
상은 : (의아한 얼굴로) 엄마 없어?  
영범 : .. 없어.  
상은 : 엄마 어디 갔는데?  
영범 : ...몰라. (잠시 시간을 두고) 사실은 아빠도 없어.

아빠가 없다는 말에 정말로 슬픈 얼굴이 되는 상은.

상은 : 아빠가 어디갔는지는 안 물어 볼게.. 나도 사람들이 아빠 어디갔냐고 물어보는건 싫으니까...

상은. 그렇게 말하고는  
언제 슬픈 얼굴을 했냐는 듯 금방 얼굴 표정이 밝아진다.

상은 :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영범 : (같이 얼굴 표정이 밝아지며) 그래.

두 사람. 대충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는다.  
영범이 궁금한지 자꾸 상은에게 캐묻는다.

영범 : 누구 기다리는데?  
상은 : 나도 몰라.  
영범 : 기다리는 사람을 몰라?

황당해하는 영범의 얼굴에서-

## # 진료실

황당해하는 닥터박의 얼굴로-

닥터박 : 수술을 안하겠단뇨?  
현숙 : 안하겠단게 아니라 지금은 못해요.

말도 안된다는 듯 차트를 적으며

닥터박 : (단호하게) 일주일 후에 수술합시다. 스케줄 잡아놨어요.  
현숙 : ...  
닥터박 : 수술 더 미루면 위험해요..  
현숙 :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할게요. 하긴 할건데 지금은 못해요.  
닥터박 : (답답하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저희 쪽에서 수술 못합니다. 지금도 사실.. 태민이 소개로 오신 분이니까 그렇지...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한다) 부담 안고 하는 수술이예요. 아시잖아요?  
현숙 : ...  
닥터박 :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히려 부탁하는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는 닥터 박.  
현숙.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는 표정이다.

현숙 : (결심한 얼굴로) 그렇게 할게요.

얼굴이 활짝 펴지는 닥터박.  
현숙.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닥터박이 고맙다.

현숙 : (살짝 미소 띄운 얼굴로) 근데.. 학교 성적은 좋았어요?  
닥터박 : 네?  
현숙 : (애교스럽게) 혹시 전문의 시험 그런데서 몇 번 실패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당황하는 닥터 박에게) 가장 유능하단 얘기 들었어요. ..수술 잘 해줄꺼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 간절한 의지를 보이는 현숙의 얼굴.

### # 골목 입구

궁금한 얼굴로 상은에게 캐묻는 영범.

영범 : 그러면 남자야 여자야?

상은 : 남자.

영범. 남자라는 말에 바짝 정신이 든다.

영범 : .. 나보다 커 작아?

상은 : 커.

영범. 크다는 말에 일단 기가 죽는다.

다시 자신감을 갖고 뭔가 더 물으려는데 별떡 일어나는 상은.

영범. 상은이 보는 쪽을 바라보면,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오는 종범이 보인다.

상은 : (홍분해서) 저 사람이야.

영범 : (병쩍 얼굴로) 저 사람?

### # 화원 안

각종 경조사에 쓰이는 화환이 늘어선 화원 입구.

꽃보다는 화환이나 나무 위주로 꾸며진 화원 안의 모습이 보이고

뒤에는 작은 규모의 비닐 하우스도 보인다.

영범이 무뚝뚝한 얼굴로 상은을 데리고 화원 안으로 들어온다.

주인 아저씨가 상냥하게 일어서다 영범이 종범에게 아는 척을 하자

다시 자리에 앉는다.

영범 : 형,

종범. 막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들어와 커피 한잔을 마시려다

영범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진다.

종범 : 여기까지 왜 왔어?

대답이 없이 시무룩한 영범.

종범 : 심심하단 소리할라면 집에 가.

영범 : 이제 나도 안 심심해. (상은 가르키며) 나도 친구 있어.

종범 : 친구?

종범. 친구라는 말에 보면, 저만치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는 상은이 보인다.

종범 : (웃긴다는 듯) 저 여자가 니 친구야?

고개를 끄덕이는 영범.

종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고만다.

종범 : 근데 왜?

영범 : ...

종범 : (상을을 힐끗 쳐다보며) 왜? 니 여자친구가 내가 맘에 든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영범.

종범 : (재미있다는 듯) 그런가 보구나?!

상은 쪽으로 다가가는 종범.

상의의 걸을 지나치다 상은을 아래위로 훑어본다.

영범을 향해 말하지만 사실은 상은이 들으라는 듯

종범 : (결렁하게) 예쁘게 생겼네..

상은. 종범이 예쁘다고 해주자 마냥 좋기만 하다.

영범. 종범이 상은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는지

영범 : (짜증스럽게) 형, 왜 그래? 상은이 누나 내 친구지 형 친구 아니야,

종범. 영범의 태도에 우습다는 듯

종범 : (상은에게) 그럼 우리도 친구할까? 아니, 이왕이면 애인할까?



상은 : 애인어요?  
종범 : 그래. 애인, (새끼 손가락을 펴보이며) 애인 몰라?

상은도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펴본다.

종범 :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애인하기다.

그렇게 말하고 상은의 새끼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거는 종범.

상은. 열이 빠져서 그 자세로 멍하게 서 있다.

종범. 상은을 보고 양아치처럼 씩 웃고는

화원 밖으로 나가 앞이 무성한 화분을 오토바이에 싣고 시동을 건다.

그런 종범의 모습을 흘린 듯 쳐다보는 상은.

종범. 출발하면서 상은에게 슬쩍 윙크한다.

완전히 홍당무가 된 상은.

잠시후, 영범이 정말 맘에 안든다는 얼굴로 상은 곁으로 다가온다.

영범 :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영범. 상은을 지나쳐 먼저 나가버린다.

## # 거리

거리를 걷고있는 영범과 상은.

상은 : 윤. 종. 범.. 종범이 오빠..

상은. 영범이 가르쳐 준 이름을 몇번 씩 되뇌이며 걷는다.

상은 :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한테 화 내?

영범 : 아냐. 상은이 누나한테 화 내는 거 아냐. ...그냥.. 형이 나랑 안 놀아 주니까.. 그래서 화낸거야.

상은 : ... 형이 안 놀아줘?

영범 : 심심하다고 하면 귀찮다고 화만 내는데 뭐, 그래서 나도 화 낸거야..

상은. 그런가보다 한다.

상은 :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근데 진짜 니네 형이야?

영범 : (끄덕끄덕) ..  
상은 : (다시 확인한다) 정말?

영범. 상은이 자꾸 물어보자 할 수 없이 털어놓는다.

영범 : .. 반만 형이야.  
상은 : .. 반만?  
영범 : 아빠만 같고 엄마는 달라.  
상은 : (이해가 안된다) 그런 것도 있어? ... 왜 그런데?  
영범 : .. 아빠가 형 닮아서 그런거야.  
상은 : 아빠가 형을 닮아? 형이 아빠를 닮은게 아니고?  
영범 : (신경질이 난다) 그냥 바람둥이란 뜻이야.

상은. 영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뒤쳐지는 상은.  
얼른 영범을 따라붙는다.

## # 거리

거리를 휘적휘적 걷고있는 현숙.  
웨딩 샷 옆을 지나다 전시되어있는 하얀 웨딩드레스에 시선이 머무른다.  
멍하니 웨딩드레스를 보고있는데 울리는 핸드폰 소리.  
현숙. 핸드폰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아 든다.

현숙 : 네.. 아, 안녕하세요. ... 어린이 수련회요? (기분이 안좋아진다) 저.. 올해는 어린이 수련회말고 학생부 수련회로 보내면 안될까요? 이번엔 제가 따라갈 시간이 안되기도 하고.. 상은이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안될까요? (한참 듣고 있다가 더 듣고 있기 힘든 표정으로).. 됐습니다. 준비해서 보낼게요.. 네. 수고하세요.

기가 막힌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는 현숙.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난다.

## # 마당/오후 해질 녘

평상 위에 봉숭아 꽃, 명반, 비닐, 실 등 준비되어있다.  
콩콩 꽃잎을 쫓고, 그릇에 우르르 명반이 담겨진다.

내밀어진 상은의 하얀 손톱에 꽃잎을 얹고 비닐을 감고 실로 묶는 현숙.  
손가락 하나, 둘.. 그렇게 상은의 손가락에 꽃 물을 들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어설피게 상은이 현숙의 손가락에 꽃 물을 얹고 비닐을 감는다.  
햇살아래 꽃 물들이고 있는 다정하기만 한 모녀의 모습.

상은 :        엄마, 바람등이가 뭐야?

상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현숙.

현숙 :        음.. 바람등이? .. 바람등이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상은 :        나쁜 사람이네..

상은. 종범이 오빠가 바람등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해진다.

현숙 :        (조심스럽게) 근데 그건 왜 물어?

상은 :        아나아나.. 그런게 있어.

현숙. 상은이 무언가 감추려든다는 생각이 들자 섭섭해진다.

현숙의 눈을 피해 딴 짓을 하는 상은.

현숙 :        .. 상은이 성당에서 다음주에 수련회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

상은 :        아, 맞아. 맞아.. 나 수련회 가지? (생각났다는 듯) 엄마, 그럼 이번 요  
          리 대회할 때 우린 무슨 요리할꺼야? 작년처럼 잡채할꺼야?

현숙. 마냥 천진한 상은과 달리, 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현숙 :        있잖아, 상은아.. 엄마가 혹시 못가면.. 상은이 선생님이랑 할 수 있지?

상은 :        (펼쩍뻐다) 싫어. 그러면 나 수련회도 안갈꺼야.

현숙 :        그게 무슨 소리야. 수련회 안갈꺼야? 수련회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상은 :        ... 그래도 엄마 안 오는건 싫어. 다른 애들은 엄마 다 온단말야.

시무룩해하는 상은을 바라보다 안되겠는지..

현숙 :        갈게. 그럼 됐지?  
상은 :        (의심쩍은 듯) 정말?  
현숙 :        우리.. 꼬마 케익 만들까?  
상은 :        (좋아한다) 꼬마 케익?  
현숙 :        그래. 우리 이번엔 꼬마 케익 만들자. 엄마가 요리 책이랑 다 준비할  
              께.

상은.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기며 좋아한다.  
그런 상은을 안은 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는 현숙.  
현숙의 마음을 위로하듯 빛을 밝히며 조용히 날아드는 반딧불이...  
현숙. 가만히 반딧불이를 향해 손을 뻗어본다.

### #상은의 집/정경

까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 빛 아래..  
상은의 집. 불이 꺼지며 잠이든다...

### # 성당 앞(아침)

'00년 어린이 수련회'하는 현수막을 단 버스가 서있고  
아이들 부모와 헤어져 버스에 하나둘 오른다.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오는 현숙과 상은.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버스에 오르는 상은.  
버스가 골목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보이는 현숙.

### # 거리

성당 버스가 골목을 빠져 나와 화원 앞을 지나자  
유리문에 코를 박고 있던 상은이 갑자기 스톱!을 외친다.  
급정거하는 버스

상은 :        잠깐만 내려주세요.

## # 화원 안

화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상은.  
신문을 보고있는 종범이 상은이 뛰어들어오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란다.  
종범 앞에 서는 상은.

상은 : (상기한 목소리로) 저.. 수련회 가요.  
종범 : (신문을 내리며) ??  
상은 : ... (꾸벅) 그 동안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뛰쳐나가는 상은.  
종범. 어안이 빙빙하다.

## # 수련회 장

경치 좋은 야외 수련회장.  
엄마와 아이가 한 조가 되어 요리를 만들어  
나눠먹는 걸로 수련회를 마치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요리대회를 하기 위해  
수련회장을 찾아온 엄마들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엄마들.  
며칠만에 엄마를 본 아이들이 반갑게 엄마 품으로 뛰어든다.  
상은도 잔뜩 부푼 얼굴로 엄마를 기린다.

## # 병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현숙.  
현숙. 초조한 눈빛으로 달력을 바라본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현숙.  
걱정스런 얼굴로 핸드폰을 찾아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 # 수련회장/요리대회

나름대로 준비한 요리를 만드느라 분주한 엄마와 아이의 모습들.  
상은. 결국 현숙 대신 선생님과 한 조를 이뤄 요리를 하고 있다.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선생님과 상은.

상은은 완전히 풀이 죽은 얼굴이다.

선생님. 통 못 알아듣고 일을 망치는 상은에게 애써 화를 참으며

선생님 : 상은아, 저기 밀가루 봉지 좀 건네줄래?

상은. 밀가루 봉지를 집어들다 봉투가 찢어지며 밀가루를 쏟는다.

선생님 : (화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인다) 애가 진짜 왜 이렇게 덜렁거려?

상은. 밀가루를 주워담으려다 더 일을 망친다.

선생님 : (상은의 손을 밀치며) 넌 그냥 여기 서 있기만 해. 넌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마. 알았어? (혼잣말처럼) 채피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다 편잔만 듣게된 상은. 침울해서 한쪽 구석으로 찌그러진다.

### #병실

난감한 표정을 짓고있는 의사와 침통해 하는 태민.

태민 :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거야?

닥터박 : 미안하다... 생각보다 너무 전이되어서..

태민 : 그렇다고 그냥 단어? 너 정말 의사 맞아? 영? 최선 다한 거 맞아?

닥터박 : 알잖아.. 너도..

태민 : 하, 정말!..

답답하게 한숨을 쉬는 태민을 토닥여주는 닥터박.

병실 문을 나서려다 둘의 대화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놀라는 현숙.

### # 병실

털썩 주저앉아 멍하게 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대충대충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현숙.  
이때 들어서던 태민과 닥터박.

태민 : ...현숙아! 뭐하는 거야?  
현숙 : 나 퇴원할래! 수속 밟아 줘!  
태민 : 현숙아!  
닥터박 : 지금은 무립니다.  
현숙 : .... 통원치료 받을게요...  
태민 : 수술 끝내고 곧바로 퇴원하는 사람이 어딴어. 아무리 일이 바빠도 당  
분간은 입원해 있자 응?....그래, 그러자 현숙아!  
닥터박 : 지금이 고비예요.. 무리하면.... 혹시나....  
현숙 : 죄송해요....꼭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태민 : 현숙아...  
현숙 : 그만해! 내 고집 이겨 본 적 없잖아...  
태민 : ....  
닥터박 : 고통이 더 심해 질 텐데.... 집에선 견디기 곤란할겁니다.  
현숙 ...약 있잖아요 ...닥터박이 잘 지어 준거!

오히려 태민을 위로하듯 웃어주는 현숙.

## # 현숙의 집

기운 없이 들어오는 현숙.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데...문이 열려있다.

현숙 : 상은아, 상은이 왔니? 어머, 일찍 왔네..

현숙. 상은을 부르며 급하게 마루로 들어서려는데  
현숙의 발에 뭐가 몽클한 것이 밟힌다. 보면, 찹이 묻은 식빵조각이다.  
그리고 집안 가득한 연기.....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가보면  
가스렌지 위에선 주전자가 빨갱게 달아올라 불이 나기 직전이고....  
식탁엔 밀가루와 계란.. 식빵이며 찹이며 엉망이다.  
이것저것 어지럽혀진 가운데 tv는 켜져 있고....  
그런 모습에 그만 기운이 쪽 빠지고 딱딱해지는 현숙.

## # 상은의 방

상은이 다리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앞에는 요리 책이 펼쳐져 있고 밀가루에 엉망이 된 머리카락..  
문을 열고 들어오던 현숙이 그런 상은의 모습을 보자 기가막힌다.

현숙 : 상은아..

상은. 엄마 목소리를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현숙 : 며칠만에 엄마 봤는데.. 쳐다도 안보는거야?

상은 : (고개를 박은 채) 엄마 왜 안왔어?

현숙 : ..엄마가.. 우리 상은이 많이 화 났구나..엄마가..

현숙. 미안한 마음에 상은에게 변명을 하며 얼버무리는데  
천천히 고개를 드는 상은.

상은 : 엄마.. 난 왜 못 해? 다른 애들은 다 잘 하는데 왜 나만 못 해?

현숙 : ..상은아...!

상은 : ..엄마도 나 챙피하지? 그래서 안온거야?

현숙. 안타까운 심정에 상은에게 다가가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상은.  
현숙. 가슴이 미어진다.

## # 마당

평상 위에 동그마니 앉아있는 상은의 모습.  
상은을 위로하듯 빛을 밝히며 조용히 날아드는 반디불이..  
상은. 가만히 반디불이를 향해 손을 뻗어본다.

## # 상은의 집/정경

까만 밤 하늘을 아래 상은의 집. 불이 꺼지며 잠이 든다.



## # 다음날/몽타주

- 오늘도 여전히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은. 다른 때보다 우울하다.
- 12시 멍하자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상은.
- 골목을 지나며 보이는 사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상은.
-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탁소를 지나, 문방구를 지나, 횡단보도를 지난다.
- 초등학교 앞에서 영범을 기다리는 상은.
- 반가와 하는 아이들, 놀리는 아이들, 위협하는 아이들.. 대꾸가 없는 상은.

## # 초등학교 앞

거의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학교의 모습.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무작정 영범을 기다리고 있는 상은.  
뒤에서 영범이 상은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영범의 소리에 뒤돌아보면  
저만치서 아픈 얼굴을 한 영범이 상은에게 손짓하고 있다.  
영범.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릴 상은이 생각에 나오긴 했는데  
몹시 아픈 얼굴이다.

## # 영범의 집/앞

단독주택에 딸린 셋방으로 따로 연결된 초라한 대문이 보인다.  
상은의 손을 이끌고 대문 앞으로 걸어오는 영범.

영범 : (대문을 가리키며) 우리 집이야. 이 다음에 내가 학교에 또 못 가면,  
상은이 누나가 우리 집으로 와. 알았지?

상은, 영범이 가르쳐준 길을 더듬어본다.

상은 : 수퍼 지나서.. 비디오 가게 지나서.. 오른 쪽으로..

차근차근 상은이 제대로 기억하는지 체크하는 영범.

상은 : 또 오른 쪽으로 돌아서 세 번째 집! 맞아?

잘했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활짝 웃어보이는 영범.  
상은. 영범의 칭찬에 자기도 환하게 따라 웃는다.

## # 영범의 집/안

부엌이 달린 단칸 방 안.  
보잘 것 없는 살림살이들이 대충 쌓여있다.  
상은은 영범이 아픈 건 벌써 잊고 단지 새로운 환경이 신기할 뿐이다.  
이것저것 들춰보다 바닥에 떨어진 종범의 사진을 발견하는 상은.

영범 : (종범의 사진에 폭 빠져있는 상은을 보다) ..형 사진.. 더 보여줄까?

형이라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상은.  
영범. 방 한쪽에 대충 쌓아놓은 물건 중에서 사진첩을 꺼내온다.  
사진첩이래야 빈약한 사진 몇 장이 전부다.  
사진을 보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종범의 사진을 시선이 머무르는 상은.  
영범. 사진첩에서 종범의 사진을 꺼내 상은에게 준다.

영범 : 가져.

사진을 받고 좋아하는 상은을 보다  
슬그머니 자기 사진을 꺼내 상은에게 쥐어주는 영범.

영범 : (얼른) 옛날에 형이 바닷가에 살았었데..

상은 : 바다?

영범 : 응. 난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데.. 형은 맨날 바다가 보고싶데..

상은 : 나도 보고싶다.. (하다가 얼마전 엄마가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엄마가 자전거 잘 타면 자전거 타고 바닷가 놀러간다고 그랬는데..

영범 : ..정말? 좋겠다...

상은 : (금방 시무룩해진다) 근데.. 난 바닷가 못 가.

영범 : 왜?

상은 : 자전거 못타니까..

영범 : 그럼 자전거 안타고 가면 되잖아?

상은 : 아, 맞다..!  
영범 : (잠깐 생각을 하다 힘 없이) 아마 난 바다를 못 볼거야..  
상은 : 왜 못 봐? 자전거 안타고 가면되잖아?  
영범 : 그냥.. 그럴거 같다고..

상은. 영범이 바다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의아하다.

상은 : 그럼.. 지금 보러 가자.  
영범 : 지금? 어떻게?  
상은 : 나 돈 많아.

자신의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보이는 상은.  
영범. 상은이 꺼내보이는 만원짜리를 보며  
만원으로 정말 바다를 갈 수 있을까..하는 표정이다.

#### # \*\*은행/앞

화면 바뀌면,  
만원짜리 몇 장을 찾아 은행을 나서는 암담한 표정의 종범이 보인다.  
종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심한 표정으로 걷다가  
휴지통에 떨어진 사채 광고지를 발견한다.  
종범. 휴지통에서 광고지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 본다.

#### # 영범의 집

방문을 열고 상체만 방 안으로 디미는 종범.  
가운데 불룩하게 뭉쳐있는 이부자리 쪽으로 약 봉지를 획 집어던진다.

종범 : 야, 떡어.

영범. 대답이 없다.

종범 : 새까, 형이 하는 소리 안들려? (성질이 나는지) 씨팔, 재수도 드럽게  
없지.. 남겨준 거라곤 돈 잡아먹는 환자새끼밖에 없으니.. (버럭) 야,  
약 안 떡어?

종범. 계속해서 대답이 없자 확 열이 뻗치는지  
신발을 신을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어낸다.

종범 : 이 새끼가 정말..

보면, 영범은 없다.  
순간, 긴장하는 종범. 열받은 얼굴이 삼시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한다.

종범 : 몸도 아픈 새끼가 어딜 갔지?

### # 버스 정류장

영범의 손을 이끌고 낯선 거리로 나선 상은.  
다른 손에는 사진을 꼭 쥐었다.  
막상. 바다를 볼 생각으로 무작정 거리로 나왔지만 막막하기만 한 두 사람.  
특히 상은은 난생처음 엄마 없이 나와 본 세상이 얼얼하다.

영범 : 몇 번 버스 타야 되?  
상은 : ..어.. (잘 모르겠다) 여기 있다가 버스 오면 타면 되..  
영범 : (아무래도 이상하다) 버스 타 본 적 있어?  
상은 : 음.. 엄마랑 여기서 버스 타봤어.  
영범 : 엄마랑?  
상은 : 응.  
영범 : ..혼자는 안타봤어?  
상은 : (고개를 떨구며) 응..

영범. 할말이 없다.

영범 : 저기.. 바다 갈려면 기차 타야되는데..  
상은 : 기차? 그럼 기차를 타러 가야겠네..

그때 마침 상은과 영범 앞에 와 서는 버스 한대.  
탈 생각도 하지않고 물끄러미 기사 아저씨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기사 : 탈꺼요? 안탈꺼요?  
상은 : 저.. 아저씨 기차 탈라면 어떻게해야되요?

기사. 떨쩡하게보이는 상은을 이상하게 쳐다보다

기사 : 역전 가슈? 그럼 이거 타슈.

타라는 말에 방긋 웃는 상은.  
쭈뼛거리는 영범을 손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탄다.

### # 버스 안

한가한 버스 안.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얼른 만원짜리를 내는 상은.  
아무 생각없이 버스 안으로 들어간다.

기사 : 어이, 아가씨, 이게 뭐야?

상은. 왜그러냐는 듯 기사 아저씨를 본다.  
기사. 상은에게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자 그냥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

기사 : 잔돈 없음 차라리 이거 가져가슈. (뒤따르던 영범에게) 자, 이거 니네  
누나 갖다 줘라.

얼른 기사 아저씨에게 만원짜리를 돌려받는 영범.  
상을을 데리고 제일 뒷자리로 가 자리를 잡는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아무생각 없이 마냥 즐겁기만 한 상은.  
영범도 바다를 보겠다는 생각에 아프다는 사실도 잊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낮선 모습에 신기하기만 한 상은과 영범.

### # 역 전

아담한 역 광장이 보인다.  
영범의 손을 잡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광장으로 들어오는 상은.  
사람들을 따라 무작정 역 안으로 들어간다.

## # 역 안

딱 개찰이 시작된 개찰구가 보이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인다.  
상은. 개찰구 쪽을 향해 걸어가는 한 아줌마를 붙잡는다.

상은 : (손에 든 사진을 보여주며) 아줌마, 바다 가려면 어떻게해요?

아줌마, 상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지나친다.  
다시 지나가는 모자를 쓴 남자를 붙잡는다.

상은 : 안녕하세요.. 아저씨, 바다 가려면 어떻게 해요?

상을을 한번 힐끗 보고는 관심없다는 듯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치는 남자.  
상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  
자기 목소리가 안들리나..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상은.  
다시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붙잡는다.

상은 :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차 타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할아버지: 기차? 저기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상은 : 헤헤.. 감사합니다. (영범을 보고) 가자.

영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은을 따라나선다.

## # 플랫폼

반대 편에 출발 대기하고 있는 완행열차가 보인다.

상은,영범 : 기차다!

영범의 손을 잡고 철로로 뛰어드는 상은.  
영범을 이끌고 철도를 가로지른다.

## # 기차 안

기차 안으로 올라서는 상은과 영범.  
상은. 쪼르륵 달려가 아무데나 빈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  
천천히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출발하는 기차.  
상은, 영범. 창문에 매달려 환호한다.

## # 기차 안(시간경과)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자,  
미처 자리를 찾지 못한 승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찾아온다.  
상은과 영범 앞에 서는 승객.  
자리를 비켜 줄 생각도 없이 마주보는 상은과 영범.

승객 : (표를 확인하며) ..저 이 자리 맞으세요?  
상은 : 맞는데요.  
승객 : (다시 한번 표를 확인하며)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다.. 표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영범을 쳐다본다.

영범 : (상은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가자.  
상은 : 왜?  
영범 : 가자니깐..

영문을 몰라하는 상은을 이끌로 자리를 떠나는 영범.  
승객. 영범이 상은이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본다.

## # 기차 복도

여러 형태의 승객들을 지나 다음 칸으로 다음 칸으로 밀려가는 상은과 영범.  
대부분이 봄 나들이를 떠나는 연인들이다.  
그렇게 복도를 걸어가다 다정하게 입맞추는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상은.  
상은.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옆에 머무른다.  
상은이 물끄러미 쳐다보자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상은을 쳐다보는 연인.  
영범이 상은의 손을 꼬집어당겨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

### # 기차/마지막 칸

사람들에게 쫓겨 기차의 마지막 칸까지 온 영범과 상은.  
마지막 기차 칸의 문을 열자 기차의 연결부분이 드러난다.  
밖으로 나오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기분이 좋은 상은과 영범.  
두 사람. 난간에 매달려 즐거워한다.  
달리는 기차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봄 산과 들판..  
아스라히 날아오는 꽃잎들..  
봄 향기에 취해 정처없이 달리는 영범과 상은.

### # 기차/마지막 칸(시간경과)

기차 본체에 몸을 기대 채 위험스레 쪼그려 앉아 있는 영범과 상은.  
코끝을 스치는 라일락 향기...  
상은. 하염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어디선가 상은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서서히 상은 특유의 상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상은.

### # 상은의 상상

달리는 기차 안.  
상은의 옆에 종범이 앉아있고 앞 자리에는 현숙과 영범이 앉아있다.  
다정하게 상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종범.  
종범. 현숙에게 “키스해도 되겠습니까...어머님” 물어보면  
현숙 고개를 끄덕여준다. “잘하게”  
상은과 종범. 천천히 뽀뽀를 하려는데...  
어디선가 키스를 저지시키는 남자(역무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안돼.....!!”

### # 기차 마지막 칸

역무원 : (기겁을 하고 소리친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상은과 영범.  
상은. 막 키스를 하려던 참인지 입술을 오물거다  
역무원의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깬다.



## # 어느 간이역

상은과 영범을 두고 떠나는 기차의 꼬리가 보인다.

영범 : 이제 어떻게하지?

영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은을 보는데  
상은은 바다를 가기로 한 애당초 목적은 까마득하게 잊고  
이미 기차길 옆으로 펼쳐진 들과 산에 정신없이 시선을 빼놓고 있다.

상은 : (선로 반대편으로 보이는 마을을 가리키며) 저기로 가자.

덮어놓고 철길을 건너는 상은.

영범. 하는 수 없이 상은을 따라 선로를 건넌다.

늑벙벙 해자 지기 시작하는 철길 위를 달리는 상은과 영범의 모습...

## # 시골마을

이제 탁 모판 위에서 눈으로 옮겨왔은 어린 모들이 펼쳐진 논둑 길..  
상은과 영범. 양쪽으로 펼쳐진 초록 논들 사이로 하염없이 걸어 들어간다.  
상은과 영범의 발자국 소리에 덩달아 울어대는 개구리들..  
가끔 어떤 녀석은 울다못해 허공으로 크게 점프한다.  
'퐁당' 소리를내다 상은과 영범에게 들키는 개구리..  
상은과 영범. 개구리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좋아한다.  
개구리를 잡겠다고 어설픈 솜씨로 논둑에서 헤매는 상은과 영범.

## # 개울

투명한 물 속으로 송사리 떼가 지나간다.  
송사리를 잡기 위해 물 속으로 침범 들어오는 손.  
재빠르게 대열을 흐트리며 용케 빠져나가는 송사리들..  
카메라 빠지면,  
송사리를 잡겠다고 개울물에 코를 박고 있는 영범과 상은이 보인다.  
번번히 실패하자 겹연쩍게 웃는 영범.  
그런 영범의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게 웃는 상은.

## # 개울 가

어느덧 밤이 몰려온다.  
서서히 붉은 노을을 밀어내며 보라 빛으로 변하는 하늘..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대충 작은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하는 상은과 영범.  
물결은 말이 아니고 젖은 옷에 한기를 느끼는 두 사람.  
상은. 어둠과 함께 서서히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상은 : 영범아.. 무서워.. 집에 가자..  
영범 :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그렇게 말하지만 영범. 사실은 몸도 많이 아프고, 겁도 많이 난다.

상은 : 엄마..

## # 동네 가게 앞

후두둑 후두둑..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는 상은과 영범.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아까부터 이상한 눈으로 내다보고있다.  
오들오들 몸을 떨기 시작하는 영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처럼 보인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영범을 바라보는 상은.  
이마 위에 손을 올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상은 : 영범아.. 영범아..  
영범 : (가물가물 대답이 없다) ..  
상은 : 잠깐만 기다려.. 내가 먹을거 사올께..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상은.

## # 구멍가게(안)

쫄딱 젖어서 구멍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상은.  
주인 아줌마.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  
진열대에서 빵을 집어드는 상은.  
계산대 앞으로 와 주머니에 있는 만원짜리를 올려놓고 그냥 나가버린다.

아줌마 : 학생, 잔돈 가져가야지?

대답도 없이 다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가는 상은.  
아줌마. 만원짜리를 보며 황당해한다.

### # 상은의 집

어두워지도록 상은이 돌아오지않자 완전히 사색이 된 현숙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 저기 전화를 걸어 상은을 찾는 현숙.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미자의 모습도 보인다.

미자 : 진정해.. 무슨 일이야 있겠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상은. 완전 초죽음 상태다.  
울어대는 전화벨.  
놀라 돌아보는 현숙.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있다.

### # 파출소

쇼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상은과 영범.  
처음 엄마와 떨어져본 상은의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하다.  
옆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영범이 앓는 소리를 하고있다.  
상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이며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상은 : 많이 아파?

영범 : (간신히) 나 아픈건 괜찮은데... 상은 누나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상은.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시무룩해진다.  
별척 문이 열리며 뛰어 들어오는 현숙과 미자.

현숙 : 상은아..!

엄마를 보고 얼굴에 화색이 돌며 현숙에게 뛰어가 품에 안기는 상은.  
지금까지 참았던 울음을 서럽게 터트린다.  
상은을 따라 같이 통곡하는 현숙.  
영범이 두 모녀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두사람이 너무 흥분한 것 처럼 보이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찰들.  
미자는 기운이 빠지는지 실 없이 웃는다.

미자 : (민망하다) 애, 애.. 그만해라. 무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했니?

그때 파출소로 들어닥치는 종범.  
영범. 종범의 화난 얼굴을 보자 긴장한다.  
종범. 다짜고짜 영범에게 다가가 영범의 뺨을 후려친다.

종범 : 미쳤어? 몸도 성하지 않은 놈이, 너 죽을려고 환장했어?

영범. 금새 눈에 눈물이 고인다.

영범 : 형...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제히 종범 형제를 쳐다보는 사람들.  
종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이 올라갔지만 자신도 놀랐는지 수습을 못한다.

종범 : (화가 나는지) 빌어먹을... (내뱉듯) 죄송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파출소를 빠져나가는 종범.  
영범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얼른 종범의 뒤를 따라나간다.

영범 : 형.. 같이 가.. 형..

## # 파출소 앞

완전히 어둠에 묻힌 마을.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영범을 등에 업고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종범.  
상은의 손을 잡고 뒤따라 나오던 현숙과 미자.  
현숙. 종범 형제를 발견하자 상은의 손을 놓고 종범에게 다가간다.

현숙 : 저.. 어떻게 갈까요? 괜찮다면 (자기 차를 가리키며) 불편하지만 같이 갈래요?

## # 차 안

현숙이 운전을 하고 있고  
자리가 좁은 관계로 덩치가 큰 미자가 보조석에 앉아있다.  
가장 안 쪽에 상은이 앉아있고 옆으로 잠든 영범을 부축한 종범이 앉아있다.  
상은.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붙어 앉아있는 종범이 신경쓰인다.  
현숙. 룸미러로 그런 상은의 모습을 유심히 본다.

## # 상은의 집/현숙의 방

잠옷을 입은 상은이 현숙의 방으로 들어온다.  
침대에 반쯤 누운 자세로 있는 현숙에게 다가가는 상은.

상은 : 엄마..  
현숙 : 피곤할텐데 가서 자야지..

현숙에게 다가오는 상은.

상은 : 엄마.. 미안해... ..나 같은... (사이) 바보 때문에 엄마 맨날 속상하게 해서 미안..

현숙 : (울켜치미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착하고 예쁜 바보가 어디있어? 상은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지..

상은 : (표정이 조금 밝아진다)

현숙 : 엄마는 누구보다 상은이가 자랑스러워.

상은 : (행복하게 웃는다)  
현숙 :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잘까?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상은.  
얼른 엄마 품으로 쪽 들어간다.  
F. O

### # 화원 앞

화면 밝아지면,  
화원 앞에서 종범을 기다리고 있는 상은의 모습이 보인다.  
오토바이를 타고 화원으로 들어오는 초췌한 모습의 종범.  
상은을 발견하고 상은에게로 다가간다.

종범 : (귀찮다는 듯) 무슨 일이야?  
상은 : 영범이가 계속 안와서.. 집에 가도 없고..  
종범 : (피곤한 얼굴로) 영범이 이제 학교 안가.

투명스럽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종범.  
상은. 다급한 마음에 종범을 붙잡는다.

상은 : 왜요? 왜 학교 안가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동자를 하고 종범을 올려다 보는 상은.  
종범. 상은의 그런 눈빛을 가만히 내려다 본다.  
얼굴이 마주치자 어색한지 얼른 잡았던 옷자락을 놓는 상은.

상은 : 오빠는 영범이 없으니까 안 심심해요?  
종범 : ...  
상은 : 난 심심한데..

종범. 아이처럼 투정부리는 상은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 # 극장 앞

극장 앞.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있는 종범.

상은은 배우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 간판에서 눈 떼지 못하고 있다.

### # 극장 안

화면에는 차를 마시던 남녀가 깊은 키스를 나눈 후 포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지는 정사썬.

뾰족한 입에 문체로 화면에 정신 빠진 상은.

종범은 영화를 본다고보다 그냥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 거리

극장을 나와 거리를 걸어가는 상은과 종범.

상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를 보고

상은 : 오빠.. 나 배고파..

종범 : 그냥 가. 집에 가서 먹어.

상은 : 배고픈데..

종범. 귀찮다는 표정으로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햄버거 가게를 나오던 종범이 알고 지내는 또래들과 마주친다.

단발머리: 뭐야? 며칠 안보인다 했더니..

모자(남): ..새로 생긴 애인이야?

파마머리: (재미있다는 듯 상은과 종범을 번갈아 본다) ..

안경(남): 인사 좀 시켜줘라.. (상은에게) 안녕하세요?

무리들. 상은에게 인사한다.

얼떨결에 같이 인사하는 상은.

종범. 어쩔 줄 몰라한다.

안경(남): (종범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또 보자.

종범 : ... 그래.

무리들. 쑥덕거리며 극장 쪽으로 몰려간다.  
무리들이 사라지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종범.  
상은이 가려는 종범을 붙든다.

상은 : 오빠.. 나 햄버거..  
종범 : (버럭) 집에 가서 먹으라니깐,

상은. 금새 울상이 된다.

종범 : (어쩔 수 없이) 내일 사줄게. 됐지?  
상은 : 진짜?  
종범 : (귀찮다는 듯) 그래. 내일 사준다니까,

상은. 종범에게 새끼 손가락을 내민다.  
할 수 없이 새끼 손가락을 거는 종범.  
상은. 생긱 웃는다.  
종범. 그런 상은의 해맑은 모습이 아찔하다.

종범 : (통명스럽게) 남들이 보면 너랑 나랑 진짜 애인인 줄 알겠다. 지금부터는 몇 걸음 떨어져서 와.  
상은 : .. 몇 걸음이요?  
종범 : (속이 터진다) 다섯 걸음!

먼저 걸어가는 종범.  
말 잘듣는 아이처럼 종범의 말대로 다섯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상은.  
끝이끝대로 다섯 걸음을 정확히 유지하려고 애쓴다.  
종범이 멈칫하면 멈칫하고 종범의 걸음이 조금 빨라지면 빨리 걷는 상은.  
두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 # 현숙의 가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현숙, 미자, 상은의 모습이 보인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커피를 마시는 상은에게



현숙 :        엄만 커피 마실 때 소리 안 난다...볼래?  
 상은 :        ....잘났어!  
 현숙 :        잠깐 숨을 멈추고 조금씩 마시면 하나도 안 뜨겁다. 봐!... 이렇게...  
 상은 :        왜 꼭 그렇게 마셔? 안 그러면 혼나?  
 현숙 :        안 그래도 되지만 이러면 더 맛있으니까?  
 상은 :        피...

은근히 엄마를 따라해 보지만... 그러나 뜨겁다.  
 입술을 데고 커피를 뱉아 버리는 상은. 옆에서 미자가 재미있다는 듯 웃는다.

상은 :        으휴 씨. 뜨겁잖아..  
 현숙 :        너무 빨리 마셨잖아. 네가. 봐 입술에 살짝 대고, 하나 둘 세고 마셔야  
               지...맛있기만 하네...  
 상은 :        안 맛있기만 해 봐라...

입술에 커피를 적시고 하나 둘을 세고 마시면 이번엔 뜨겁지가 않자  
 기분이 좋아져 활짝 웃는다.

현숙 :        어때?  
 상은 :        응.. 맛있어! 뜨겁지도 않네....이 맛이구나...

상은. 커피를 마시다 아까 본 영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음이 난다.  
 커피를 마신 후, 감미로운 키스 후에....  
 포옹하는 영화 속의 남녀 극 떠올리는 상은.

### #상은의 상상

영화 속의 남녀가 상은과 종범으로 바뀌며  
 종범, 현숙에게 공손히 인사하고..“어머님.. 상은이하고 섹스 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고개를 끄덕이며.....“열심히 하게”  
 종범...“네... 고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상은을 번쩍 안아 침대에 눕히는 종범.  
 누워있는 상은에게 감미롭게 키스하고.....상은의 옷을 벗겨내고....

상은의 몸 위로 올라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종범.....  
 종범의 몸이 달 때마다 아...앙.....아....앙 비명을 질러대는 상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종범  
 .....

감미로운 상상에 빠져 커피를 마시다 뜨거운 커피를 쏟는 상은.

## # 현숙의 가게

얼른 휴지로 쏟아진 커피를 닦아주는 현숙.

현숙 : 조심해야지..

상은 : (커피를 쏟은 건 상관 없다) 근데 엄마! 섹스가 뭐야?

미자 : (커피를 마시다 폭하고 내 뺨는다)

현숙 : 그게 그러니까(절절매면)

미자 : 애를 나도 열두명은 낳을 나이야 상은이. 말 해줘. 제대로!

미자 : 내 딸이 짐승이야?...열 둘을 낳게...니가 말해 그럼.

상은 : 내가...뭐 잘못했어?

미자 : 잘못하긴.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 : 잠깐만....

상은 : .....

현숙 : 그러니까.. 섹스는 정신하고 육체가 만나는 건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말야... 음..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자 : 놀고있네.. 별거 없어. 그냥 남자 여자끼리 옷 벗고 옆치락 뒷치락 물고 빨고 그러는거야.

현숙 : 애! 어디서 저질스럽게....

미자 : .... 사랑은 원래 저질스러워야 더 인간적인거다.

현숙 : 커피 다 안 마셨니?

미자 : 구성애 아줌마 불러올거 아니면 내가 정답이야. 왜 그래. 아줌마가 참고서 빌려다 줘? 털밑쌔쌔, 공동정사구역, 육감 많잖아.

상은 : 응

현숙 : (버럭) 넌 커피를 하루종일 먹니!

미자 : 커피 맛 한번 꿀맛이다!

## # 욕실

건성건성 탄 생각을 하며 현숙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상은.

- 상은 : 엄마.  
현숙 : 응?  
상은 : 남자랑 여자랑 그러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며?  
현숙 :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제일 좋고, 또 제일 행복한거야.  
상은 : 그걸 어떻게 알아?  
현숙 : 뭘?  
상은 : 사랑.

다시 난감해지는 현숙.

자신도 진지하게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표정이다.

- 현숙 : 음... 그 사람을 생각할 땐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땐 눈물이 난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겠지. ...마치 눈과 속눈썹처럼.. 웃을 때 같이 웃고.. 눈물 흘린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세상도 같이 바라 보는 거.. 그런게 사랑이야.  
상은 : 근데..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아프잖아?  
현숙 : 그래. 아플 때도 있지... 가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때도 있단다.

엄마의 말을 꼼꼼히 생각해보는 상은.

- 상은 : 엄마...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현숙 : 음.... 그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나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켜야하거든... 엄만 그렇게 생각해!  
상은 : ...(고개 끄덕이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서-

### # 맥도널드 앞

다정하게 앉아있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카메라 빠지면,  
맥도널드 앞에서 종범을 기다리는 상은이 연인들의 모습을 보고있다.  
상은의 눈에 혼자 걸어오는 남자는 모두 종범같다.

### # 사채 사무실

깨지고 터지고 으깨진 만신창이의 얼굴로 한쪽 소파에 쓰러져있는 한 남자.  
그 옆. 큰 덩치의 사내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종범.  
종범의 얼굴도 이미 말이 아니다.

사내 : 동생 수술비라길래 사정이 딱해서 빌려줬더니.. 돈 쓰고도 니 동생 못 살린 건 니 사정이고.. 일단 돈은 갚아야할 거 아냐.. 어디서 돈을 때 먹을라고 들어?

종범 : ...

사내 : 딱 삼일이다. 삼일 안에 안 갚으면 이번엔 니 동생이 아니라 니 목숨이 찢리는거야? 알았어? (종이 한장을 내밀며) 여기서 싸인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싸인을 하는 종범.

### # 현숙의 가게

영수증에 싸인을 하는 현숙의 모습이 보인다.

배달원 : 그럼 갑니다. 수고하세요.

미자,현숙: 안녕히 가세요.

새로 들어 온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는 미자.  
현숙이 다가와 옆에 앉는다.

미자 : (침대보를 펼쳐 보이며) 곱다. 그치?  
현숙 : 그래. 너무 곱다.. 우리 상은이 침대보하면 좋겠네..  
미자 : 어머, 새로 갈아준지 얼마나 됐다고 또 침대보를 갈아줘?  
현숙 : 내 맘 갈아선 매일매일 새 침대보에서 자게 하고 싶은걸..  
미자 : 아서라.. (침대보를 다시 개어 넣으며) 이거나 정리하자.

미자. 커다란 덩치의 이불 뭉치를 집어든다.

미자를 도와 선반 위에 이불 뭉치를 올려 넣으려고 하는 현숙.

현숙. 갑자기 아찔하며 중심을 잃는다.

미자 : (선반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야, 좀 제대로 좀 받쳐 봐.

폴썩 주저앉는 현숙.

미자. 이불 뭉치를 놓치며 짜증을 내다 쓰러진 현숙을 보고 기겁을 한다.

미자 : 현숙아, 현숙아..!

#### # 맥도널드 앞

상은 : 종범 오빠!

종범. 술에 취해 비척거리며 걸어가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본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상은.

종범. 상은을 보고 비릿하게 웃는다.

상은 : (화사하게 웃으며) 오빠..

종범 : 뭐야?

상은 :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종범 : (생각났다는 듯) 아, 그래.. 그랬었지.. (낄낄거린다) 내가 너랑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었지?

상은 : (진심으로) 오빠가 약속 지켜서 정말 다행이야.

종범. 뭐가 다행이라는건지 모르겠다.

## # 맥도널드 안

햄버거를 먹고있는 상은.  
종범은 콜라만 홀짝거린다.

상은 :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근데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종범 : 신경 끄고 빨리 햄버거나 먹어.  
상은 : 근데 오빠 왜 안 먹어요?  
종범 : (귀찮아 죽겠다) 햄버거 사먹을 돈이 없다.

상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종범을 쳐다본다.

종범 : (어이가 없어서) 왜? 불쌍해?

상은. 햄버거를 입에 물고 끄덕인다.

종범 : (기가 막힌다) 니네 집 돈 많으면 나 좀 갖다주라.  
상은 : 갖다줄게. 내가 오빠 돈 갖다줄게.

종범. 상은과 마주앉아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자기 꼴이 웃긴다.

종범 : 미치겠구만..

## # 종범의 집/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종범의 집 안.  
비척비척 집으로 들어오는 종범.  
상은. 종범을 따라 방으로 들어온다.  
종범. 대충 잠바를 벗고 이부자리 위에 쓰러진다.

상은 : (종범 보고) 근데 영범이 언제 와요?  
종범 : .. 영범이 이제 안 와.  
상은 : .. 영범이 안 오면 안되는데..

종범 옆으로 다가오는 상은.

상은 : 영범이 어디 갔는데요?

갑자기 상은이 손목을 '확' 낚아채는 종범.

상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런 상은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는 종범.

상은의 손을 잡아 끌어 자기 몸에 바짝 갖다 붙인다.

종범 : 영범이 어디 갔나 가르쳐 줄까?

상은 : (긴장한 얼굴로 끄덕끄덕) ...

종범 : 영범이 어디 갔냐면..

상은을 안아 눕히고 상체를 가져가는 종범.

종범. 상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댄다.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상은.

종범. 너무 순진해 보이는 상은의 모습에 상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상은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져가려다... 그만두는 종범.

다시 벌렁 눕는다.

종범 : (신경질적으로) 꺼져.

상은. 가슴이 쿵당거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종범 : 상! 꺼지라니까!

상은. 부시시 일어난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이해하는 상은.

상은 : 미안해.. 종범 오빠..

종범. 자신이 못되게 굴어도 화 낼줄도 모르는 상은이 애처롭다.

종범 : ..... 영범이 ..영범이 여행 갔으니까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영범이 여행가서 이제 안 올꺼야..

허탈하게 웃는 종범의 눈에 한줄기 눈물이 흐른다.  
종범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파지는 상은.

### # 상은의 집

난장판인 집안의 모습이 보인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져 있고 화장대도 엉망이다  
옷장 문도 모두 열려있고 마구잡이로 쑤셔놓은 옷장 안의 모습..  
이때, 들어오던 현숙. 난장판으로 변한 광경에 울컥 화가 치민다.

상은 : (달려오며) 엄마, 엄마. 나 돈 줘.  
현숙 : 누가 저렇게 해놨어?  
상은 : 빨리, 나 돈 달란 말야.. 돈 어디 있어?  
현숙 : 누가 저렇게 했냐구!  
상은 : 엄마....엄마 왜 화내..  
현숙 : 치워. 제자리에 다 정리하고.  
상은 :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나 빨리 돈 줘..  
현숙 : 먼저 방부터 치워.  
상은 : (상은도 엄마 태도에 심통이 난다) ...  
현숙 : 해! 빨리!  
상은 : .. 나중에 치우면 되잖아!  
현숙 : 얼른 해. 니가 저지른 일은 반드시 니가 마무리 지어.  
상은 : 나중에 내가 다 할꺼란 말야.  
현숙 : 나중에 어디 있어!  
상은 : 엄마.. 왜 그래.. 엄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들고있던 책들을 바닥에 우루루 쫓아 버리는 상은.  
우수수 쫓아지는 책들 틈에 통장(도장이 함께 든)이 떨어진다.  
얼른 통장을 집어드는 상은.  
현숙, 순간적으로 상은의 뺨을 때린다.



충격을 받은 얼굴로 현숙 쳐다보는 상은.  
상은.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나가버린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멍하니 바라보는 현숙.

### # 종범의 집/안

눈물이 범벅이 되서 종범의 집으로 달려온 상은.  
상은. 종범에게 다짜고짜 통장과 도장을 내민다.

상은 : 오빠. 여기 돈..

아직 정신이 덜 깬 듯 멍한 얼굴로 부시시 일어나는 종범.  
통장을 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웃는다.

종범 :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상은. 말 없이 통장을 디민다.  
할 수 없이 받아드는 종범. 통장을 열어보다 깜짝 놀란다.

상은 : 오빠..

통장 커버에 들어있는 도장이 통장 도장이 맞나 확인하는 종범.

상은 : 엄마가 그러는데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거래..

앞 장을 살펴보면 한 쪽 귀퉁이에 써 있는 비밀번호.

상은 : 나도 오빠한테 약속 지켰으니까..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종범.

상은 : 이제 오빠 사랑해도 되는거지?

종범 : (정신이 없다) 어? 뭐라고?

상은 : 오빠.. 사랑한다고..

종범 : (신발을 신으며 건성으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대로 나가버리는 종범.

상은 : 다 알아.. 오빠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 오빠 바람둥이잖아..

종범이 나간 빈 방...

상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선다.

일어서다 한 쪽에 아무렇게나 쳐박혀있는 영범의 영정 사진을 발견하는 상은.  
가만히 다가가 영범의 사진을 집어든다.

상은 : 영범이네..

#### # 놀이터

영범의 영정 사진을 안고 그네에 앉아있는 상은의 모습이 보인다.

그 옆으로 왔다갔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시글벅벅한 오후의 놀이터..

몇몇 아이들은 상은이 들고 있는 영범의 사진을 보고 아는체를 하기도 한다.

아이들1: 영범이다..!

아이들2: 영범이? 어디어디...?

사진 앞으로 몰려와 장난치는 아이들.

지나가던 어른들이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상은을 보고 수근덕거린다.

상은 앞을 지나던 아줌마가 혀를 꼴꼴찬다.

아줌마 : 동생이 죽었나보네.. 어린 나이에 안됐어.. 아가씨..

상은 : ?!

아줌마 : 기운 내요. 사는데 다 그런거야..

자기의 아이를 찾아서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아줌마.

상은. 놀란 눈으로 영범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본다.

## # 현숙의 가게

가게로 뛰어 들어오는 상은.

상은 : 아줌마.. 미자 아줌마..

미자.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 뛰어드는 상은을 보고는 화들짝 놀란다.

미자 : 상은아,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상은 : 아줌마.. 죽는게 뭐야?

미자 : ... (울먹하는)

상은 : 아줌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어? 아줌마..

미자 : 상은아.... (울음이)알어?

상은 : 아줌마도 알아?

미자 : (울기만 할 뿐)

상은 : 아줌마.... 죽으면 다시는 못 봐?

미자 : (아예, 껴안고 울며) 어떡하냐.... 니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상은 : .....

미자 : (울다가) 그런데, 엄마 죽는 거 어떻게 알았니? 누가 알려줬어?

상은 : ... !! 아줌마....누가...죽어?...지금...엄마라고 했어? 응?

미자 : ...안다며?

상은 : .....!!!

미자 : 엄마 아냐?

깜짝 놀라는 상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간다.

## # 상은의 집/현숙의 방

상은이 어질러놓고 나간 방을 청소하는 현숙.

대충 청소가 끝나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시작한다.

사진, 편지, 문서.. 등의 물건들을 챙기기도 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 파란 노트에 무언가 꼼꼼하게 적기도 한다.

잠시 뒤..... 뛰어들어와 엄마를 부르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은.

상은 :        엄마. 엄마 죽어? 응? 엄마 죽어?

현숙. 상은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다.

현숙 :        (침착하게) 상은아.. 이리 와봐.

상은. 엄마의 손짓에 천천히 현숙에게 다가간다.

현숙. 상은을 옆에 앉힌다.

상은 :        엄마, 엄마 죽는거 아니지... 그렇지 엄마...아니지?

현숙.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마음먹지만 도저히 입이 안떨어진다.

상은 :        엄마... 나, 엄마 죽는 거 싫어. 엄마 안 죽지? 응?

현숙 :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한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들었어?

상은 :        그렇지... 그렇지 엄마 안 죽지? 미자 아줌마가 거짓말 한 거지? 음?  
              그렇지 엄마?

현숙 :        엄마가 왜 죽어.... 엄마, 안 죽어....오래오래 살아서 상은이 시집가고  
              그래서 아기 낳고...다 봐야지. 엄마가 안 보면 누가 보겠어? 응? 안  
              그래?

상은 :        나 인제부터 모든지 다 잘 할께....모든지 시켜 엄마.. 이제 내가 다  
              할께...엄마...

상은의 머리를 보듬어 안는 현숙.

상은.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다.

모녀의 애처로운 모습에서 오랫동안 암전.

## # 몽타쥬

장면 바뀌면,

현숙이 상은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모습이 보여진다.

- 노천카페

오고가는 남자들. 앉아 있는 남자들... 다양한 남자들의 모양새가 펼쳐지며  
그 모습 위로 타임을 설명하는 현숙의 목소리가 뜬다.

현숙(목소리): 재는 아니야.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 보잖아? 저런 남자는 마음보다는 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인생을 맡겨선 안돼...

저렇게 다리를 떠는 사람은.... 경망스럽고 무슨 큰 일이 생기면, 도망부터 가는 타입이거든..

남자는 옆에 앉아 얘기 할 때도 무릎이 내 쪽으로 오면 날 좋게 보는 거고... 바깥으로 향해 있으면 날 나쁘게 보고 있는거야...

- 은행

현숙 상은에게 청구서에 이름, 액수 등을 기입시킨다.

제대로 적지 못하고 엉뚱한 액수를 적는 상은...

일일이 가르치는 현숙...

이번에는 자동화 코너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며 돈을 인출시킨다.

- 부엌

현숙 상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친다.

배추를 절이고... 고추가루를 넣고....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상은.

- 백화점

숙녀정장 코너에서 옷을 골라 상은을 돌아보면 장난감가게에 있는 상은.

구둣가게에서 하이힐을 골라주면 .... 투박한 단화 고르는 상은.

현숙 상은에게 억지로 하이힐을 신긴다.

정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제법 숙녀답다.

걸는 것이 몹시 불안정한데...파당.... 앞서서 걸어보는 현숙...

상은에게 카드를 건네고 계산을 시키는 현숙.

못하겠다고...싫다고 하는 상은.

카드 건네고 모른 척 다른 곳으로 시선 돌려버리는 현숙.

상은 할 수 없이 점원에게 카드 건네고 온다.

점원, 상은을 부르고 사인 요구하자.... 엄마에게 달려가 버리는 상은.

현숙, 상은에게 용기를 주면 점원에게 가 차상은이라고 기입한다.

상국이 웃어주는 현숙.

- 포장마차

짤... 잔을 부디치고 쓴 소주를 억지로 구겨 넣는 상은.  
안주를 집어 서로에게 먹여주는 모녀.  
그런 서로의 모습을 보고 우습다는 듯 웃는다.

- 방

현숙, 상은의 얼굴에 립스틱을 칠해주고 있다.  
혼자서 립스틱을 칠해보는 상은의 모습 위로,

현숙(목소리): ...남잔 화장 못하지? 그렇지? 여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서 해. 여자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도 많은거야. 잘 하는 쪽을 사랑해야잖아 그렇지?

거울을 보고 속스럽게 웃는 상은의 얼굴.

#### # 상은의 집/마당

현숙이 상은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온다.  
보면, 마당에 창고에서 끄집어 내온 자전거가 놓여있다.

현숙 : ....!  
상은 : 엄마.. 나 자전거 타는법 가르쳐 줘.  
현숙 : .. 자전거.. 안탄다면서..  
상은 : 엄마가 상은이 자전거 잘 타면 바닷가 데려간다고 그랬잖아.. 헤헤..

미소짓는 현숙의 눈가에 언뜻 눈물이 맺힌다.

#### # 동네 공터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비틀비틀하는 상은.  
상은을 잡아주며 랜턴으로 길을 밝혀주는 현숙.  
어느새 즐거워진 두 모녀.  
식은땀을 흘리는 현숙...벤치에 앉는다.  
엄마의 랜턴 빛을 따라 비틀비틀 제법 자전거를 타는 상은.

그런 상은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현숙...  
상은의 자전거. 이젠 제대로 달린다.  
현숙의 옆을 지나치는 상은의 자전거.

상은 : ...엄마. 나 이제혼자서도 잘 타지?

현숙이 앉은 벤취를 빙빙 도는 상은.  
밤하늘에 메아리 치는 상은의 목소리..

### # 현숙의 가게

유리 문이 열리며 종범이 들어온다.  
일 손을 멈추는 현숙.

현숙 : 미자야.. 미안한데 잠깐 나 좀 나갔다 올게.

미자. 슬쩍 분위기를 살피며..

미자 : .. 그래. 금방 들어올꺼지?

현숙 : 오래 안걸릴꺼야.. (가방을 챙겨나간다) 나가죠..

### # 커피숍

고개숙이고 마주 앉아있는 종범과 현숙.  
종범이 현숙에게 통장과 도장을 내민다.  
현숙. 통장을 받아보면 오백만원이 비어있다.

종범 : 죄송합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돈은 꼭 갚겠습니다.

현숙 : ...

현숙이 아무 말이 없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종범.

현숙 :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 # 국도

봄 꽃이 흩날리는 강변 국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화려하기 그지없는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트렁크에 자전거 두 대가 실려있다.

## # 차 안

운전을 하고 있는 종범의 모습이 보인다.  
그 뒤에 현숙과 상은이 타고 있다.  
상은. 종범의 동행이 서떡하다.

## # 바다

어느 철 이른 바닷가에 도착한 현숙 일행.  
망연한 눈으로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현숙...  
바다로 뛰어드는 상은...  
바다를 보고 감회에 젖는 종범...  
종범이 말없이 차로 가서 자전거를 꺼낸다.

## # 바닷가/모래사장

자전거를 타는 모녀의 모습.  
두 사람의 자전거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면 이내 바다가 와서 지워버린다.  
자전거를 타고 현숙을 휩 지나 앞서서 달리는 상은.  
현숙도 자전거를 타고 뒤질세라 따라간다.  
모래사장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현숙과 상은  
점점 현숙의 자전거가 뒤쳐지며 무거워진다.  
상은 빨리 오라고 손짓해가며 달려간다.  
헉헉거리는 숨을 내몰아 쉬는 현숙.  
저만치 구부리고 있는 현숙을 향해 상은, 다시 달려간다.  
모래사장에 풀썩 주저앉는 현숙....  
이왕 앉은 김에 벌렁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본다..

상은 :        엄마. 옷 버리잖아...



현숙 : ...괜찮아....

다가 온 상은도 엄마를 따라 벌렁 눕는다.

지긋하게 상은을 안아주는 현숙... 현숙의 팔에 머리를 기대는 상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현숙과 상은.

현숙 : 저 새는 좋겠다.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상은아.... 만약에 만약에 말야 엄마가 상은이 혼자 두고 멀리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은인 혼자서 어떡할꺼야?

상은. 여행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난다.

상은 : ..왜 혼자 가는데?

현숙 : 만약에....

상은 : ....

현숙 : 엄마가 맞춰 볼까?... 매일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다가... 밥도 안 먹고.....옷도 지저분해져서...친구들하고 놀꺼야.... 매일매일....그렇지?

상은 : ...그걸 어떻게 다 알아?

현숙 : 엄마들은 그런거 다 알아.....

상은 : 그런데 엄마 틀렸어..... 상은이가 뭐 어린앤가...

현숙 : 그럼 어떻게 할건데?

상은 : 상은이는....엄마 올 때까지 울지도 않고... 문단속도 잘하고... 밥도 잘해서 먹고... 음... 그리고.... 음 빨래도 잘하고... 그러면서 엄마 기다릴꺼야...

현숙 : 정말?

상은 : 내가 엄말 어떻게 속여! ....엄만 안 봐도 다 아는데... ...근데 엄마..

현숙 : 왜?

상은 : 만약에.. 만약에 엄마 여행갈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줘야 해.

현숙 : .. 그래. 미리 이야기 해줄게.

상은 : 영범이처럼 말도 안하고 가지 말고..

현숙. 상은이 이미 알고있다는 걸... 느낀다.

상은 : 꼭 인사하고 가기다..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상은.

현숙. 소리 죽여 흐느낀다.

## # 바닷가 /파라솔

파라솔 아래 앉아있는 세 사람..

종이컵에 든 커피를 마신다.

상은은 그 날 이후 종범이 부담스러운지 통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 종범이 커피를 소리내면서 마시자

상은 : 오빠, 이렇게 입술에 살짝 대고, 하나 둘 세고 마셔야지..

그렇게 말하다 얼른 입을 다무는 상은.

종범 : (시키는대로 한다) 이렇게?

상은을 보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지어주는 종범.

상은. 무안하고 쑥스럽다.

일어서서 모래사장 쪽으로 가는-

상은 : 두꺼비집 만들어야지..

모래 사장으로 뛰어가 두꺼비집을 만드는 상은.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나오..’

상은의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이 조용히 말을 꺼낸다.

현숙 : 고마워요. 이런 부탁.. 귀찮았을텐데..

종범 : 아뇨..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파란 노트를 꺼내는 현숙.

현숙 : (종범에게 건넨다) 이거.. 나중에.. 상은이에게 전해줄래요?

가만히 노트를 바라보는 종범.

현숙 : ... 말하자면.. 잔소리 같은거예요.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주기가 어렵네요..

알았다는 듯 말없이 노트를 집어드는 종범.

저만치서 상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면 두꺼비집을 만들어놓고 좋아하는 상은의 모습.

현숙. 스프르 일어나 상은에게로 간다.

현숙의 뒤를 따라 상은에게 가는 종범.

### #모래사장

모래 사장에 두꺼비 집 네 개를 만들어 놓은 상은.

상은의 곁으로 현숙과 종범이 다가온다.

현숙 : 근데 왜 두꺼비 집이 네 개야.. 상은아?

상은 : (두꺼비 집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엄마꺼.. 내꺼.. (약간 쑥스러워하다) 종범이 오빠꺼.. (마지막 하나를 가리키며) 그리고 영범이 꺼

종범. 영범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하다.

주머니에서 영범의 사진을 꺼내는 상은.

두꺼비 집 위에 정성껏 영범의 사진을 세운다.

상은 : 엄마, 영범이는 한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데.. 이렇게 하면 영범이도 바다가 보일까?

종범. 눈시울이 시큰해진다.

현숙 : (애써 웃으며) ...그래.. 아주 잘 보이겠는걸..

상은. 잘 보인다는 말에 현숙과 종범을 보고 활짝 웃는다.

손에 붙은 모래를 털며 일어서는 상은.

현숙의 손을 잡고 뒤 돌아 걸어가면  
 종범. 잠시 영범의 두꺼비 집을 바라보다 뒤 늦게 돌아선다.  
 해가 지는 지평선과 허물어지는 두꺼비 집을 뒤로한 채  
 모래 사장을 빠져나오는 세 사람...  
 W. O

# 몽타주

1.  
 노을이 지는 창가..  
 휠체어를 타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현숙의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현숙 돌아보면,  
 상은이 엄마를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엄마 맘에 들어? 한다.
  
2.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 위를 썩썩하게 걸레질하는 상은.  
 걸레질을 하다가 그릇들을 깨고... 양념통을 엮지르고...물통을 넘어뜨리고..  
 문득 방문을 나서던 미자가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상은을 보고 놀란다.  
 청소하는 상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뒹수습하기에 정신이 없는 미자.
  
3.  
 자기 방 정리를 하고 있는 상은.  
 어설픈 솜씨로 옷을 개어 옷 장 안에 넣고, 침대 위도 가지런히 정리한다.
  
4.  
 잠든 현숙의 곁에 누워있는 상은.  
 현숙이 아무런 기척이 없자 놀란 눈으로 가만히 현숙을 바라보다가  
 혹시 엄마가 죽었나 싶어 슬쩍 건드려본다..

상은 : .....엄마!  
 현숙 : (가물가물 눈을 뜨는) 음... 왜?  
 상은 : (휴..안심하며 썩 웃는다)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헤헤...  
 현숙 : ..싱겁긴...

헤헤 웃으며 현숙을 꼭 끌어안고 옆자리에 다시 눕는 상은

5.

집 앞.....현숙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상은.

이때 지나던 아줌마가 아는 체 하며 지나간다.

아줌마 : 아줌마 좋으시겠어요... 상은이가 효도를 다 하고...

순간 행복하게 웃는 현숙의 표정에 기분이 좋아지는 상은

힘차게 대문을 열고 들어온 상은과 현숙.

입구의 턱 때문에 휠체어를 올리기가 힘들자...상은. 빙긋 웃으며 등을 대준다

상은 : 엄마 내가 업어 줄게...

현숙 : 엄마 무거워!

상은 : 괜찮아 나 힘 써! 업혀 엄마!

상은의 성화에 못이기는 척 등에 업히는 현숙.

현숙을 번쩍 업고 방으로 들어가는 상은. 침대에 눕히고 자랑스럽게 웃는다.

상은 : 나, 힘 써지 엄마?

현숙 : 그래, 엄마 두 명은 업겠다...

상은 : 엄마 근데 내가 효도한거야? 응? 이게 엄마한테 효도한거야?

현숙 : 그럼! 효도한거지!

상은 : 정말!

현숙 : 음... 정말!

상은 : (기분이 좋아서 씩 웃는)

6.

거리. 엄마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제법 능숙한 솜씨로 달리는 상은.

행복한 얼굴로 웃어주는 현숙..

행복하게 페달을 밟는 상은. 아름답게 거리를 달리는 자전거..

7.

놀이터에서 덤블링을 하며 놀고있는 상은의 어린 친구들.  
상은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고 소리지르지만..  
상은. 짧은 고민 끝에 집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재촉한다.

## # 골목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서 상은을 기다리던 종범과 마주 친 상은.

상은 : (반갑다) 종범 오빠..  
종범 : ... 요즘 통 안보이길래..  
상은 : (다시 쑥스러워지는) ...  
종범 : ..바쁘구나?  
상은 : (끄덕끄덕)

상은, 종범 오빠를 만나니 표현을 못할 뿐, 사실은 너무 기쁘고 반갑다.  
그러나 엄마 생각에 마음이 급한 상은.

상은 : 오빠,.. 미안한데.. 나 엄마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될 거 같아.  
종범 : 아, 그렇구나.. 내가 깜박했네..

종범. 뒤에 감춘 자그마한 허브 화분을 꺼낸다.

종범 : (상은에게 주며) 허브데.. 향기가 괜찮아.

받아들고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드는 상은.

종범 : 갈게..

종범. 쑥스러운지 얼른 돌아간다.

종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상은.

상은.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은을 부르는 소리..

종범 : 상은아..!

상은. 돌아본다.

종범 :       있잖아.. 사실은 나.. 바람둥이 아냐..

그렇게 말하고 쑥스러운지 얼른 돌아서서 가는 종범.  
가다가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걸어간다.  
환하게 웃음 번지는 상은.

### # 거실

신나서 집으로 들어오는 상은.  
이때 가느다란 현숙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상하다 싶어 방을 살짝 열어보면,  
고통을 참고있는 현숙과 현숙을 위로하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보인다.

현숙 :       미자야, 우리 처음 만나게 몇 살 때니?  
미자 :       중학교 이학년 때니까.. 열다섯살인가보다..  
현숙 :       그래? 우리가 마흔 다섯이니까.. 삼십년 됐구나..  
미자 :       끔찍하게도 오래됐네..  
현숙 :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는지.. 정말 미스터리야.. 그렇지?  
미자 :       난 너같은 독종하곤 상대도 안할 줄 알았다..  
현숙 :       난 너같은 날날이하고 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주보고 희미하게 웃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웃음에 세월이 묻어난다.

현숙 :       미자야.. (침착하게) 나 아직 죽으면 안되는데..  
미자 :       (태연한 척)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니가 어디 쉽게 죽을 애니?  
현숙 :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 우리 상은이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볼 때까지.. 죽으면 안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는 상은.  
비틀비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 # 상은의 방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는 상은.

멍하게 천장만 바라본다.

DIS

창문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상은. 앉았던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

DIS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구급차 한 대.....서서히 f.o

### # 슈퍼

불을 켜고 셔터를 올리는 슈퍼 아저씨.

셔터를 올리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기다리고 선 상은.

빙긋 웃으며 말을 거는 아저씨.

아저씨 : 아이구... 이렇게 일찍부터 군것질이야?

상은 : ...

아저씨의 말엔 대꾸도 없이 곧장 야채코너로 걸어가

야채들을 바구니에 담는다.

### # 카운터

여러 가지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주인.

주인 : 오늘은 좀 많네... 만팔천 오백원.

상은 : ...

손을 내밀고 있는 주인에게 만원짜리 한 장을 내고 걸어가는 상은.

당황하는 주인, 이내 그런 상은을 기특하게 바라본다.

### # 부엌

어설픈 솜씨로 야채를 다듬고 씻고...

밥통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냄비에선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다.



파를 썰어 찌개에 넣고... 양념을 넣고 맛을 보는 상은.  
맛이 훌륭한 듯 만족한 표정을 지어본다.

### # 병원 복도

도시락을 들고 자랑스럽게 복도를 걸어오는 상은.  
씩씩하게 병실로 들어간다.

### # 병실

자랑스럽게 들어온 상은.  
현숙의 침대맡에 준비한 도시락을 의기양양 꺼내놓는다.  
음식과 함께 꺼내 놓는 반찬들... 초코릿,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음식을 놓으며 베개를 살짝 치우면, 절대안정..절대 금식이라고 써있는 글씨.  
그런 딸이 너무도 대견한 현숙.

상은 :        엄마 이거 내가 다 만든거다!  
현숙 :        .....!!!  
상은 :        (손가락 쥐어주며) 먹어봐. 아냐, 아 해봐 엄마.  
현숙 :        ....

현숙. 받아먹으며 울컥 눈물이 흐른다.  
그런 엄마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은

상은 :        엄마 왜? 매워?  
현숙 :        ....아니..  
상은 :        그럼 왜.. 내가 뭘 또 잘못했는데....  
현숙 :        아니야... 우리 상은이 너무 잘했어... 엄마는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봐.  
상은 :        ..엄마, 그럼 왜 울어.. 웃어야지... 응? 왜 울어..  
현숙 :        안 울어.. 엄마 우는 거 아니야..  
상은 :        다음엔... (다음이란 말이 가슴에 맺힌다) 다음엔.. 고춧가루 안 넣고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현숙 :        그래.. 그래. 상은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현숙에게 찌개를 떠 주는 상은.  
현숙, 찌개 냄새에 비위가 상하지만 그래도 참으며 먹는다.  
이때 들어서다 입이 벌어지는 미자.

미자 : 어머 어머.. 상은아.. 엄마는...  
현숙 : ....

화들짝 놀라며 미자 달려오는 순간 괜찮다고 눈짓하는 현숙

현숙 : 이리 와.. 맛있어!  
미자 : 현숙아!  
상은 : 아줌마 손가락도 여기 있어요. 이리 와 아줌마..  
현숙 : ...떡어 봐.. 너 이런 거 떡어 본 적 있어?...  
미자 : ..현숙아..

찌개를 떠서 현숙의 입에 넣어주는 상은.  
애써 구역질을 참으며 받아먹는 현숙..  
그러나 자꾸 표정이 일그러지며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된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미자.

미자 : 상은아. 엄마 수건 좀 빨아 올래? 엄마 세수부터 좀 하자..  
상은 : ...밥 먹고.  
미자 : 빨리!

미자의 성화에 수건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상은.  
재빨리 휴지통을 대주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음식을 넘기는 현숙.

미자 : 아무튼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바보가... 이게 뭐야? 이기지도 못하면  
서...  
현숙 : 년.. 이런 맛 몰라. 얼마나 맛있는데...  
미자 : ....

답답해하는 미자에게 씩 웃는 현숙.  
어이없이 픽 웃고 마는 미자.

### # 몽타주

- 창문이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
- 누워있는 엄마의 곁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상은.
- 스산한 바람이 불어대는 병원의 트락..
-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파란 이파리들이 바닥에 훑날린다...
- 병실 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 # 병실/밖

수건을 빨아 들고 들어오던 상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흠칫 놀란다.  
멍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나가는 상은.

### # 병원 밖

입술을 꼭 다물고 병원건물을 빠져 나오는 상은.  
벤치에 앉는다...  
한동안 멍하게 하늘을 보며 앉아있던 상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간다.

### # 병실

가물가물 힘겨운 현숙. 상은을 찾는 듯 둘러본다.  
그럴수록 더 안쓰러워하는 사람들.  
시간이 없는 듯 자꾸만 문 밖을 두리번거리는 미자.

미자 : 이 놈의 계집애는 대체 어디 쳐 박혀 있는거야... 이 마당에...

고통을 참으며 인자하게 미소짓는 현숙.  
눈물을 참아내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미자.

현숙 : ... 미자야  
미자 : 현숙아...  
현숙 : (손을 잡는다) 고맙다..  
미자 : ... 현숙아...

눈물을 흘리던 미자... 도저히 볼 수가 없는지 복도로 나와 입구만 바라본다.

미자 : 모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니...

### # 상은의 방

입술이 잘못 그려지면 다시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준 그대로 화장을 하는 상은.  
옷장 문을 열고 얼마 전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서 산 옷을 꺼내는 상은.  
옷을 꺼내는데 언 듯, 옷 장 안 쪽에 보이는 하얀 레이스..

### # 병실

마지막 안간힘을 내며 버티는 현숙.  
사람들 모두 안타깝게 상은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병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은이 천천히 들어온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상은..  
놀라는 사람들.  
상은,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가면...  
죽음의 기운이 깃든 현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현숙 앞에 멈춰...자랑스럽게 한 바퀴 돌아보는 상은.  
운동화를 신고... 바지 위에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의 뒤편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다...  
빙긔 웃는 현숙...  
미자, 재빨리 단추를 잠가주면....  
현숙을 향해 환하게 웃는 상은....  
미자 눈물을 감추려고 애쓰는데....  
슬픔을 감춘 채 일부러 더 환하게 웃는 상은.

그런 상은을 보며 행복하게 웃는 현숙의 얼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웃는 그 얼굴에서.....  
WHITE OUT

### # 유원지/사무실(현재)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파란 노트를 내려놓는 면접관.  
상은이 의아하게 쳐다보자 얼른 눈가를 훑는다.

면접관 : (상은에게 노트를 돌려주며) 좋은 엄마를 두셨군요.

상은. 엄마 생각이 나는지 빙그레 웃는다.

면접관 : 결과는 일주일 안에 알려드릴게요.

면접관. 직접 일어나서 상은을 배웅한다.

### # 사무실 밖/유원지

마당에 세워놓은 자전거에 타는 상은.  
아직까지 문 앞에 서 있는 면접관에게 다시 한번 인사한다.  
상은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는 면접관.

면접관 : 조심해서 잘가요..

상은. 자전거를 타고 꽃 축제가 한창인 유원지를 빠져나간다.  
상은이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뒷 모습을 바라보는 면접관.

면접관 : 자전거 같은 인생이라... 가만, 내 자전거를 어디다 뒀더라...

### # 에필로그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활기차게 달려가는 상은.  
힘차게 달려 꽃길로 접어드는 상은의 자전거.  
상은이 달려감과 동시에 꽃잎 위에 앉아있던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어느새 나비의 시선으로 바뀌어 유유히 비행하는 카메라.

햇살이 청량한 어느 오후.

중국집 배달부를 지나, 요란한 야채장수를 지나, 골목 어귀에 서 있는 트럭을 지나... 화분을 매단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는 배달부...(종범)를 지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카메라.

똑..똑....똑....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고..  
닫지 않은 창문으로 커튼이 날리고..

끄지않은 오디오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상은의 집으로 들어온다.

한동안 소중한 시선으로 집안을 바라보던 카메라..

천천히 너울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간다.

서서히 멀어지는 상은 집...

그 모습 위로 엔드타이틀이 뜬다.